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이 찬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채 규 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찬

## 인 준 서

이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0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성숙도에 대한 구성 요인 탐색을 통한 가톨릭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개발과 타당화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되어진 영성 척도는 모두 서구의 영성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그동안 서구 영성심리학의 성숙이라는 개념이 여과 없이 한국 문화에 수용되어 왔었다. 영성은 삶을 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생활양식이며, 인간을 초월하는 절대자·자신·이웃·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목적 을 인간 내적인 본질에서 찾고, 주변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 통합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가톨릭신자 영적 성숙은 신자가 신의 은총으로 신앙생활 을 하는 동안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성숙에 대한 구성 요인 탐색과 성숙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헌 조사를 통해서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개인 내적 자원으로 잠재 구성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성 요인이 실제로 가톨릭 신자들의 성숙을 탐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을 심층 면담하여 그 반응을 근거로 문항 추출한 결과 총 93문항이 만들어졌다. 이 문항들을 연구자가 잠재적 구성 요인으로 가정한 3개 요인으로 분류하기 위해 문항선정 작업과 평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문항선정 작업과정을 걸쳐 46문항을 추출하였으며, 평정작업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해서 총 24문항이 만들어졌다. 추출된 24문항을 전국의 가톨릭 신자 4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가톨릭 신자 23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영적 성숙도를 측정된 결과,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개인 내적 자원의 3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3요인, 22문항이 탐색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측정변수가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계수도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기존의 타 척도 즉, 영적 안녕감 척도, 영적 성숙도 척도와의 변별, 수렴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상태 불안과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그 상관이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3 (개인 내적 자원)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우울과 불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도 측정을 통해서 신자 자신의 영적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일반화 작업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영성, 영적 성숙, 가톨릭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II. 이론적 배경 .....	7
1. 영성 .....	7
1) 영성의 개념 .....	7
2) 영성의 구성 요소 및 효과 .....	10
3) 영성과 종교성의 관계 .....	12
4) 그리스도교적 영성의 개념 .....	16
5) 영성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	18
2. 영적 성숙도의 차원 .....	19
1)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 .....	19
2) 그리스도교적 영적 성숙도의 개념 .....	22
3) 영적 성숙과 신과의 관계 .....	23
4) 영적 성숙과 타인과의 관계 .....	23
5) 영적 성숙과 자신과의 관계 .....	24
3. 영적 성숙도 척도의 유형 .....	25

1) 영적 성숙도 척도의 기존 연구 .....	25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 .....	30
4.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	31
1) 척도 제작의 유의점 .....	31
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에 대한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	33
3)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문항 구성 .....	34
<b>III.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개발 .....</b>	<b>35</b>
1. 예비 문항 개발 및 구성요인 탐색 .....	35
1) 전체 연구과정 .....	35
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예비 문항 개발 및 선정 작업 .....	36
2. 연구절차 .....	36
3. 연구대상 및 특성 분석 .....	37
4. 분석방법 .....	40
5. 연구결과 .....	41
<b>IV.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타당화 연구 .....</b>	<b>46</b>
1. 연구절차 .....	46
2. 연구대상 및 특성 분석 .....	46
3. 분석방법 .....	54
1) 확인적 요인 분석 .....	54
4. 연구결과 .....	56

V. 논의 .....	62
VI.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72
1. 연구의 의의 .....	72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73
참고문헌 .....	76
ABSTRACT .....	91

## 표 목 차

..

<표 1> 주요 영성 관련 측정 도구 .....	26
<표 2>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n=400) .....	37
<표 3>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대 (n=400) .....	38
<표 4>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력별 (n=400) .....	38
<표 5>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세시기별 (n=400) .....	39
<표 6>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신앙기간별 (n=400) .....	39
<표 7>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신앙별(n=400) .....	40
<표 8>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고유값 .....	42
<표 9>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43
<표 10>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최종 문항 내용 및 요인 계수 .....	43
<표 1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n=189) .....	47
<표 12> 성별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	48
<표 13>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대별 (n=189) .....	48
<표 14> 연령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	49
<표 15>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력별 (n=189) .....	50
<표 16> 학력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	51
<표 17>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신앙생활 기간별 (n=189) .....	52
<표 18> 신앙생활 기간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	52
<표 19>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내 종교 상황별 (n=189) .....	53
<표 20> 가족내 종교 상황별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	53

<표 21>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	57
<표 2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계수 .....	57
<표 23>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전체와 요인간 및 각 요인간 상관 관계 .....	58
<표 24> Ellison의 영적 안녕감 척도, Ellison의 영적 성숙도 척도와의 수렴, 변별 타당도 .....	60
<표 25> 우울, 상태 불안 척도와의 상관관계 .....	61

## 그림 목 차

[그림 1] 스크리 도표: 가톨릭 신자 성숙도 척도의 고유값 분석 .....	42
[그림 2] 확인적 요인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	5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신체·심리·사회·영적으로 통합된 다차원적인 존재이다. 신체, 심리, 사회적인 존재로만 규정하던 인간에 대한 정의가 1960년대 이후부터 ‘영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면서 학문의 세계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인간의 이성만을 절대시 하던 합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두된 포스트모던 정신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개념이 재규정되면서 부터이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웰빙(well-being) 상태’로 규정하였다.

이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영성을 가진 존재로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추구하며, 그 절대자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합한다. 대인관계 속에서 신뢰, 희망, 의미, 사랑, 용서와 같은 최상의 가치들을 완성하고자 하는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가정해체, 인간관계의 소외현상과 삶의 위기와 갈등,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영적 욕구들을 영성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의 방법 연구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김용환, 2009).

종래의 심리학은 측정과 과학적 통계를 통하여 정확한 답을 요구하므로, 경

험과 증거가 불가능한 영성을 연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영성을 심리학의 주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있어 마음의 한 부분인 영성은 간과할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서경현 외, 2005).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성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Jung(1933)은 현대인들에게는 영적 관점의 부재가 정신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영적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곧 치료책이라고 말했다. Maslow(1968)는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고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만한 가치관, 삶의 철학, 종교 혹은 종교를 대신할 만한 것들을 필요로 하며, 이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햇빛, 영양소, 사랑과도 같다고 했다(박성현, 성승연, 2013). 현재 인류는 생태계의 파괴, 물질만능주의, 가족과 친밀한 인간관계의 해체로 인한 비인간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삶의 위협과 불안, 스트레스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영성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김용환, 2009).

이와 같이 영적 건강(웰빙)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성은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은 절대자인 신과의 만남에서 나오며, 이런 절대자와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원을 탐색하여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영성과 수반되어서 나타나는 종교성에 대해서 박준성, 전태연(2011)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종교성은 행복, 봉사활동 그리고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 중 대부분은 인간이 스스로 환경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살률 급증, 학교장면의 왕따, 사회 전반에 팽배한 이기심, 생명에 대한 존중 상실, 폭력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이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이 정신 및 행동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Frankl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발견한다는 것은 종교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Einstein의 말을 인용하면서 궁극적 의미 즉 초월적 의미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 즉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Frankl, 1995).

May(1979)는 만일 건강한 인격을 얻고자 한다면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목적이 없으면 의미도 있을 수 없고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결국 살아갈 수 없다. 건강한 인격에 필요한 조건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 목적은 물론 전체적인 인생과정의 목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종교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전체적인 인생 과정의 목적에 대한 신념이며 따라서 의미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직면하는 경우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종교다.

Soderstrom 등(1977)의 연구결과에서는 믿음과 실행의 적절한 조화는 삶의 의미의 확장을 나타내며, 불일치는 삶의 목적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즉 삶에서 종교적 통합은 삶에 더 큰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종교 인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 4,821만 명(2010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010) 중에 종교 인구는 2,497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53.1%에 달한다. 그 중에서 불교 인구는 1,072만6천명, 개신교 인구 861만6천 명, 가톨릭 인구 514만6천 명이다. 종교 인구 중에서 가톨릭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0년간 가톨릭 신자의 숫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성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면에서 현재 국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 자기 통제, 타인 배려를 탐색할 수 있는 영적 성숙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영적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영적 성숙을 측정하기 위해서 Ellison이 개발한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Ellison, 1983), 그리고 영적 성숙도 척도(Spiritual Maturity Index, Ellison, 1983) 등이 번안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척도들에 대한 타당도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영성은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문화권마다 영성의 구성 요소가 상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화와 그에 맞는 영성 측정도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금까지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 등이 개발되었으나 영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오복자 등은 한국판 영성측정 도구(2001)을 개발하였고, 이경열 등은 한국인을 위한 영

성평가 척도(2003)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심성을 적절히 대변하고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적합한 영성 척도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해 왔고 현재에도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와 공존하며 살고 있다. 이런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역사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서양문화를 개인주의적이라고 한다면 동양문화 특히 한국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많은 부분의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귀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서양문화는 내부 귀인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동양문화 특히 한국문화는 외부귀인(상황 귀인)을 더 많이 하고 있다(박준성, 정태연, 2011). 서양과 동양 문화의 이런 차이로 인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종교·심리·사회·문화·역사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영적성숙도 척도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여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 추세에 있는 가톨릭 신자에 대한 영적 성숙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신자 자신의 심리적 및 종교적, 영적 성숙의 상태를 파악하고,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고, 현재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다른 영성 척도와의 수렴, 변별 타당도를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성과 우울 및 상태 불안 등의 정신건강 척도와의 준거 기준 타당도로 상관관계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에 있다.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의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될 것인가?

가설 1.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될 것이다.

[연구문제 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Ellison의 영적 안녕감 척도 및 Ellison의 영적 성숙도 척도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가설 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Ellison의 영적 안녕감 척도 및 Ellison의 영적 성숙도 척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3]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정신건강(우울, 상태불안)척도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가설 3.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정신건강(우울, 상태불안)척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영성

#### 1) 영성의 개념

영어 단어인 영성(spirituality)의 어원은 히브리어 'ruah', 그리스어 'pneuma' 그리고 라틴어 'spiritus'에서 파생되었고 그 의미는 영혼, 용기, 정열, 숨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숨'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Bryson, 2004). 영(spirit)은 육체에 생명을 주는 원리나 활력, 참된 목적, 사람의 지·정·의의 움직임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모든 측면을 통합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차원을 초월하여 역경에 반응하고(박준양, 2009),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힘 또는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인간 본성으로 제시하였다(Frankl, 2012).

이처럼 영성은 다양한 의미를 지녔는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신 혹은 위대한 존재, 자신,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파생된 의미나 목적의식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하겠다(Greenwald, Harder, 2003. Hodge, 2001. Koenig, 2002. McVay, 2002 Treloar, 1999). Watson은 영성은 인간의 정수라고 표현을 했으며, 영성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내적 강인함, 자신의 초월에 대한 의지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Plante과 Sherman은 영성을 종교의 주요 기능으로 보며 신성함을 찾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영성은 자신, 타인, 절대자와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영성은 자신을 초월할 인간 능력과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 주변

환경, 자연 그리고 절대자를 포함한 외부의 힘을 포괄한다(Lepherd, 2015). 영성은 자기수용, 절대자 또는 타인과의 사랑, 용서, 신뢰의 관계,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 등과 관련된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삶의 의미, 고통, 죽음 등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Highfield, 1992, 2000).

Elkins 등(1988)에 따르면, 영성은 관계성(connectedness)과 통합성(integration)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삶 속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관계성은 자신, 타인, 자연 그리고 신 혹은 궁극적 존재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 경험적인 준거는 자아인식, 봉사, 화해, 용서, 신뢰, 종교적 행동 등이다. 요약하면, 영성은 인간 삶의 원리나 본질이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Burnard, 1988), 신이나 우주, 더 높은 힘, 신비와 연결된 느낌이나 삶의 연결성(Bradshaw, 1994) 등으로 절대자와의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내적인 평화와 힘을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다.

Ellison(1983)은 영성을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 타인, 자연,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경험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 보았다. Burhardt(1989)는 인간 삶의 근본 원리,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믿음, 존재의 의미로서, 개인을 초월하여 신과 자신, 이웃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희망, 의미, 사랑과 같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완성하도록 하는 능력이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는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Paloutzian과 Ellison(1982)은 영성을 두 가지 차원의 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수직적 차원으로 상위 존재인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종교적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 차원으로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실존적 영성이 다. 종교적 영성은 상위 존재인 신에 대한 인지 및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 상실 등 삶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실존적 영성은 자신과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믿음, 가치, 생활양식 등을 형성하도록 하여 대인 관계를 통한 사랑과 용서,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김용환, 2009). Dyson, Cobb, & Formand(1997)는 57개의 논문에서 영성의 의미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성의 탐색을 위한 기틀은 일차적으로 자신, 타인, 신과의 관계로 구성되며, 전반적으로 이 틀 내에서 의미, 희망, 관계성, 믿음과 분명하게 맥락을 이루며 표현된다고 밝혔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성을 일컬어, 자기 초월과 진리를 아는 능력 속에서 드러나는 힘 또는 타인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상에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 힘과 활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인간적 본질의 측면에 대해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종교인들은 영성을 절대자, 즉 신으로 인정되는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자기초월능력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한다(Bowe, 2013).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양한 설명들을 통해 영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영성은 절대자인 신과의 만남에서 나오며, 이런 절대자와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원을 탐색하여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이끌어 가는 원천, 에너지이다.

## 2) 영성의 구성 요소 및 효과

영성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함을 볼 수 있다. Ellison(1983)은 영성은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Shafranske와 Gorsuch(1984)은 온전함, 연결, 무한에 대한 개방으로, Fersgt와 Taylor(1988)는 영성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종교, 의미, 희망으로 보았다. Burkhardt(1989)는 삶의 의미와 목적, 초월감을 포함한 드러나는 신비, 조화로운 상호관계성, 통합적 에너지, 초월성으로, Howden(1992)은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상호연결성, 초월성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Ingersoll(1995)은 초월의 개념, 의미, 관계성, 현재 집중, 신비, 의식, 희망, 용서, 지식, 영적 자유로 보았다. Westgate(1996)는 영성의 구성 요인을 삶의 의미, 내적 가치, 초월적 가치, 초월적 신념, 공동체로 정리하였다.(조삼복, 2012에서 재인용). Elkins, Hedstrom, Hughes, Leaf 및 Saunders(1998)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확신, 인생의 사명감과 신성함,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 타인에 대한 이타주의적인 태도, 세상의 개선을 위한 비전, 그리고 인생의 비극적인 면에 대한 중대한 자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성 가치로 설명했다. 오복자와 강경아(2001)는 영적인식, 관계성, 사랑, 초월적 에너지,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김후자(2001)는 자기 충만의 능력, 조화로운 관계의 능력, 자기 통합의 능력, 자기 인식의 능력, 자기 초월의 능력으로 제시하였다(조삼복, 2012에서 재인용).

영성의 기능면을 살펴보면, 영적 안녕감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기능을 지닌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은 사람에 따라 개발되거나 안 될 수도 있어서 자신이 인식하거나 못할 수도 있다. 영을 인지하고 영이 역동하는 사람은 신, 자신,

타인, 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조화로운 관계성, 자기 초월, 절대가치와 절대자에 대한 믿음, 삶의 의미와 목적 인식, 희망 등의 영적 충만감 즉, 영적 안녕을 경험한다(오복자, 강경아, 2000; Miller, 2000). 이와 같이 영성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 영성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자존감, 대처능력, 사회적 지지 체계를 포함한 정서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Anandarajah & Hight 2001. Hodge, 2001. Koenig, 2002. Thoresen & Harris, 2002).

또한 종교성 관련 심리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종교성이 강한 내담자, 즉 자기수용, 이웃사랑 및 신과 친밀한 관계성의 특성이 높은 내담자에게는 종교성을 포함한 치료개입이 증상의 완화와 영적 안녕의 증진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다(Schowalter, Richard, Murken, Senst & Rueddel, 2003). 이 연구자들은 영성과 건강의 긍정적 관련성을 다음의 여섯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종교적 공동체 및 지원을 통해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영성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공하여 인지적 방향성을 제공하고 절제 행동을 권장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삶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한 한계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믿음을 통해 행동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서 수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으며, 해로운 행동방식 및 가치에 대한 대안적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영성을 지향하고 실천한다면, 영성은 삶의 자원 및 대처 양식으로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영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하고 마약을 사용하는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던 청소년들도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의 수준을 높였을 때 마약 사용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은철, 김민정, 2010). 영성과 종교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에게 있어서 영성과 종교성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 심리적인 웰빙, 긍정적인 정서, 감사하는 태도, 낮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반응, 혈압 강하효과, 낮은 사망도를 보인다(Fehring, Brennan, & Keller, 1987). 또한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위험 행동 감소, 예를 들면 폭행, 성폭력, 물질 남용, 자살율의 저하 등을 보인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건강, 리더십, 학업수행, 이타적 행동, 희망, 사랑, 목적의식, 자존감의 향상을 나타낸다(Benson & Roehlkepartain, 2008).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Pargament는 영성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건설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경로로도 영성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영성이 반드시 선(goodness)만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영성 또는 종교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서도 역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성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윤혜영, 김근향, 2015에서 재인용).

### 3) 영성과 종교성의 관계

영성과 종교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종교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종교’라는 단어는 최고의 가르침,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어원을 보면 ‘반복하여 읽다’라는 라틴어 ‘relegere’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반복적인 수행과 신에 대한 경배라는 뜻이다. 그리고 ‘함께 묶다’라는 의미로

신과 인간을 결속을 뜻하는 의미의 라틴어 'religare'에서 유래하였다(김동기, 2003). 이렇듯이 종교는 초인간적·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인간이 경외하고 숭배하고 신앙하여 선악을 권고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종교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초월적인 존재를 숭앙하는 의례를 행하는 한편, 신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를 권고한다. 결국 종교는 공동체적으로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신앙과 실천 그리고 영성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춘 가치를 포함한다(Canda, 1997; Nelson-Becker, 1999). 이러한 종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이라 불리는 '영원한 초월적 절대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초월적 존재와의 교류 방법으로서의 신앙, 기도, 깨달음, 사랑 등의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하며, 셋째, 구원 상태로서의 내적 자유, 완전한 자기실현, 영원한 정복, 죄의 용서, 부정의 제거와 정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완전한 생의 충실감, 죽음 문제의 해결 등이 있어야 한다(조옥진, 2005).

영성과 종교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가하면 또 연결성이 없다는 이론도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먼저, 상호 연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종교는 신념(dogma), 신경(신조)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로부터 형성된 전통을 근간으로 하는 신념 조직체(Boswell & Boswell-Ford, 2010; Hill & Pargament, 2003; Koenig, 2009)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영성은 개인적인 믿음, 태도, 가치 종교적 경험의 차원,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DiLorenzo, Johnson, & Bussey, 2001; Neuman, 2011; Roehlkepartain, Ebstynne King, Wagener, & Benson, 2006)로 나타난다고 한다.

반면, Plante와 Sherman은 영성은 종교의 기능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성스러움을 찾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Lephard, 2015). 영성은 신과의 관계

나 헌신에 있어서 더욱 개인적인 관점을 나타내고(Good & Willough, 2008)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인데 반해, 종교는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또한, 종교성은 '초월적 존재와 관련되는데 신적 존재를 직접 경험하고 종교적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신념을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Asselt et al, 2009) 영성과 종교성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종교성은 영성에 포함되는데 초월적 존재와 관련된 영성의 영역이 특정한 종교적 신념과 만나게 되면 종교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Good & Willoughby, 2006).

Pargament(1999), Hill 외(2000)의 연구에서는 영성과 종교(성)를 정의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영성과 종교성은 첫째, 신성한 존재를 구도하면서 일어나는 감정, 사고, 경험 및 행동이라는 핵심요소를 공유한다. 둘째, 종교성의 기준은 이 핵심요소에 더하여 비(非)성스러운 목표(예: 정체성, 소속감, 의미, 건강, 웰빙)에 대한 추구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구도의 수단과 방법(예: 의식이나 명문화된 행동들)이 반드시 존재한다(이예나, 2013). 영성과 종교는 점차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데 종교성은 좀 더 객관적이고 제도화된 개념을 함축함에 비해, 영성은 좀 더 주관적이고 내재화된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Zinnbauer et al. 1999).

둘째, 영성과 종교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입장을 살펴보면, 종교는 개인 내적인 존재가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것이라고 보는 반면, 영성은 정신 혹은 마음의 광범위한 상태와 연관이 되어있기에 공식적이고 조직체를 통해서 나타내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종교는 신학적인 신념과 실천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영성은 공식적인 조직체 없이 개인적으로 연관이

되었다(Lepherd, 2015).

셋째, 영성과 종교가 상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의하면, 영성은 공식적이거나 특별한 종교적인 징후들을 초월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영성에는 접점이 있다. 종교성은 세 가지 분명한 경향을 지니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 참석하는 전례적인 실천, 믿을 교리에 대한 교의의 채택, 그리고 성스러움과의 연결성을 찾는다(Hay & Socha, 2005).

Hodge 등의 연구(2006)에 의하면, 영성과 종교의 관계성 연구에서 응답자의 14%가 영성과 종교의 관계가 없다고 했고, 8%의 사람들은 영성과 종교가 약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12%의 사람들은 영성과 종교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고 19%의 사람들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40%의 사람들이 영성과 종교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7%의 사람들은 영성과 종교가 개념적으로 같다고 했다(Hodge et al, 2006). 이를 보면 영성과 종교의 개념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영성과 종교성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영성은 인간과 절대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로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고 개인의 내면과 같은 사적인 면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서 종교성은 신적 존재에 대한 숭배와 체험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영성과 종교성은 신 혹은 초월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연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영성은 종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삶의 의미에 이해를 갖고 초월적인 존재와 개인적인 관계를 촉진한다. 가톨릭 신자에게 있어서 영성은 절대자와의 만남,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요약하면, 종교성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어서 인간이 삶의 무의미함, 허무감, 무력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정신·심리·행동·활동적으로 건강하며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나 극심한 혼란과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종교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더 나아가 인간은 종교성을 통해 궁극적인 삶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생활은 개인의 정체성과 안녕, 잠재력과 같은 삶의 긍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영성(spirituality)은 인간의 희로애락과 신에 대한 현대적 탐색 양상에 대응하는 내용과 선례를 듣고, 들은 내용을 현재 우리의 신앙에 새겨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세계와 그 안에 현존하는 신성한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영성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재를 이름 부르면서 경험하든, 초월적 실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 너머에 삶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확인지는 무언가 신비로운 존재, 궁극적 실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존재적 본질이라고 말한다.

#### 4) 그리스도교적 영성의 개념

그리스도교에서 영성이란 하느님의 영과 연관된 삶의 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영적인 사람이란 진 존재와 삶이 하느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 인도되고 잘 정돈된 사람을 일컫는다(부영호, 2006). 그리스도교적 영성은 인간에 대한 성령의 현존뿐 아니라 지식, 사랑, 헌신을 통한 인간의 자기 초월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영성은 인간 삶의 모든 차원을 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 영성은 심리·영성적 역동관계 안에서 자기 초월성의 실제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속시킨다고 볼 수 있다(조옥진,

2005).

그리스도교 신학적 측면에서 영성의 정의는 세 가지로 내릴 수 있다. 첫째, 자아초월적인 의미로서 '영'을 말한다. 둘째, 영성은 인간의 자기 초월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셋째, 영성이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를 향하여 자신을 초월하고 역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합해 가는 경험을 말한다(정미자, 2010). 요약하면 그리스도교 영성이라 함은 절대자인 신과 나 자신의 초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변화하게 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Drazenovich는 그리스도교 영성은 실존주의적이라고 밝히고, 영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동을 나타낸다(Bryson, 2004).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로써 삶에서 활력을 얻게 되고, 신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게 된다. 이런 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 자연,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자세를 지니게 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Kahle & Robbins(2004)은 영성을 개인의 종교적 신앙과 실천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Good & Willoughby(2006)는 영성을 종교성과 유사하게 인식하지만 신과의 관계에서 좀 더 개인적인 시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Hill과 그의 동료들(2003)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성적인 동시에 종교적으로 분류한다고 보았으며, 영성과 종교는 상당 부분 서로 겹친다고 하였다.

Downey(1986)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①문화내부에서 ②전통과 관련해 ③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④그 시대의 사건과 희망과 고통과 약속에 비추어 ⑤명상과 활동의 요소를 결합하려는 노력으로 ⑥카리스마와 공동체에 관하여 ⑦

관계 안에 입증되고 표현된 바와 같이 -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영성 일반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다차원적 성격을 강조했다(Bowe, 2013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영성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영성은 인간 실존 중 영의 차원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몸 · 정신(혼, 마음) · 영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실존 전체와 관련을 맺는 여정이며, 몸, 정신, 영의 세 차원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닌 세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원리이다. 육체와 의식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정신-육체 구조 전체가 영성 생활을 좌우한다.

본 연구에서 영성과 종교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성과 종교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서 영성의 긍정적인 면과 종교의 긍정적인 영향을 상호 비교하면서 파악을 하도록 한다. 영적 성숙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5) 영성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영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의 수준이 낮아지고, 우울증이 생길 확률도 낮아진다고 하며,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어도 영성의 수준을 높여 주었을 때 우울증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협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처나 불안의 수준을 감소한다고 본다(Davis, Kerr, & Kurpius, 2003; Dew,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응답은 0점에서 4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고효정, 송원영(2014)에 의하면 영적 안녕감과 우울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영적안녕감과 영적안녕감의 두 가지 하위 차원인 실존적 안녕감 및 종교적 안녕감은 모두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상태 불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ielberger(1970)에 의해 개발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김정택(1978)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20문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가깝다고 해당되는 쪽에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은 각각 최저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특성불안, .916, 상태불안은 .951로 나타났다. 고효정, 송원영(2014)은 영성수준이 높은 사람일 경우 불안의 수준은 감소한다고 했다.

## 2. 영적 성숙도의 차원

### 1)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

심리학자들은 성숙을 성장, 발달, 자기실현 등과 같은 개념과 비슷한 동의어로 쓰고 있지만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성숙(maturity)이

란 성장을 기초로 하여 나타나는 질적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Mckeach와 Doyle(1966)은 성숙을 성장, 발달과 동의어로 보았는데, 성장은 신체적 발달을 의미하고, 성숙은 행동적 변화를 의미하며, 발달은 유기체가 출생 시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박은민, 2012에서 재인용). Greenberger와 Sorensen(1974)은 성숙을 성장, 발달, 사회화의 최종 산물 혹은 ‘이상적인’ 심리적 결실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뿐 아니라 한 개인이 특정 환경적 맥락에서 어떻게 잘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Steinberg(1985)는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차원들을 정체성, 자율성, 친밀감, 성적 활동(sexuality), 성취감(achievement)으로 나누었는데 한 개인의 사회행동 특성 및 심리적 속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노이경, 2010). Jersild와 McCandless(1996)는 ‘성숙’을 외부의 환경, 조건, 경험, 연습과는 관계없이 유기체 속에서 일어나는 유기적 과정이며 구조적 변화라고 하여 유전적 소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발달의 측면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박정희(2002)는 ‘성숙’을 유전자 안에 있는 유전적 계획에 의한 행동적인 변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개념의 뜻은 다양하나 성숙이란 유전적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발달의 측면이면서 성장, 발달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통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이 통합,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한 가지 영역의 우수성보다는 다양한 부분의 통합이 보다 완전한 성숙을 의미한다(박정희, 2002). 심리적 성숙 조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김홍규·박정희(2000)는 정서 안정성, 사회 인지적 능력, 사회성, 윤리 도덕성, 자아 정체성, 긍정적 사고 등 여섯 개의 영역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영적 성숙이란 한 개인이 하느님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

는 삶의 총체적 과정으로, 하느님과의 수직적 관계 및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인 영적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황인숙, 2014). Benson(2008)은 영적 성숙이란, 계속적으로 역동적인 자기 내적 여정과 자기 외적 여정의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내적 여정이란, 영성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하고 기여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한 내적 힘을 수용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외적 여정은 가족, 공동체, 세상, 성스러움, 우주적 실재와의 연계 안에 포함된 존재의 연결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물론 영적 성숙에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지만, 때로는 의심, 허우적 거림, 영혼의 어둔 밤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Vaughan(1986)은 영적 성숙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지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요약하면, 심리적 성숙은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 가져야 할 심리적 특성으로, 건전한 인격 특성 및 정신건강을 말하는 반면, 영적 성숙은 삶을 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방식이며, 인간을 초월하는 절대자(신)·자신·이웃·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인간 내적인 본질에서 찾고, 주변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 통합할 수 있는 힘으로 인간 존재의 완성이며 삶의 충만감을 가져온다.

## 2) 그리스도교적 영적 성숙도의 개념

영적 성숙도는 그리스도교인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영적 성숙의 정도이다. Ellison(1983)이 정의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발적이면서 자기 훈련이 되어 있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사고하며, 교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신앙에 대해 확고하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하며, 하느님과 가깝고 깊은 관계를 가지며, 신앙을 실천하는 일상생활을 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교회와 같은 기관이 없어도 신앙을 영위할 수 있으며 분명한 영적 목표를 지니고 하느님과 규칙적인 시간을 갖고, 자신이 받은 은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낸다(Slater,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톨릭 신자로서의 성숙은 인간적으로 성숙된 이를 더욱 풍요롭게 하며, 인간 성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 안에서 통합되고 온전해지며 들어 올려진다(조옥진, 2005).

영성생활과 심리적 차원의 생활에서 보면, 영성생활은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도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현대인의 근본적인 실존적 불안에 대해 하느님께 근거를 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이 주는 영적 동기로 인하여 개인적 열등감이 줄어들고, 신앙 안에서 인간 삶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영성은 우리가 궁극적인 실재에 응답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나타낸다. 신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대면하면서 한계를 지닌 작은 존재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영적 성숙은 인간적 생존의 고통을 신앙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신비로 이해한다.

### 3) 영적 성숙과 신과의 관계

그리스도교인은 절대자이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Ellison(1983)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통찰력, 신앙이 삶에 주는 의미 등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성숙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영적 성숙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신과의 관계가 우선 된다는 뜻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그리스도교적 영성은 절대자인 신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만남이 있고 난 뒤에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원을 탐색하여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준선(2012)에 의하면, 이런 신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활에서 규칙적인 기도, 성경읽기, 전교, 봉사 활동 등으로 매일 경건하도록 힘쓰며, 성숙한 영적인 생활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고 정의할 수 있다.

### 4) 영적 성숙과 타인과의 관계

Paloutzian & Ellison(1982)은 수직적 차원의 신과의 관계와 수평적 차원의 자신, 타인, 사회/환경과의 관계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고 연결성을 추구하며, 종교적 활동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활동인 사랑, 절제, 자기초월, 평안, 자아 존중, 희망, 자기수용, 용서, 기도, 종교적 실천, 이웃 봉사, 기쁨과 감사의 삶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Fish & Shelly(1979)는 영적 성숙이란, 절대자와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온전함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정희, 2004에서 재인용).

영성의 본질적 측면과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통합적 영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련성에서 통합적 영성의 주척도인 영성의 본질적 측면과 대인관계문제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사람들에게 향함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통합적 영성의 주척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박봉수, 2014).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영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질, 즉 영적 성숙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루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몸의 차원에서의 경험, 정신 차원에서의 경험, 영의 차원에서의 경험이 아우러져 통합된 영적 성숙은 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인간적 경험에서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 타인을 수용하면서 판단 없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봄과 함께 타인을 인격적 체험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알아감은 성숙의 상태로 '건너감'을 실현해 보이는 일일 것이다.

## 5) 영적 성숙과 자신과의 관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개발 및 활용을 통해서 신과 더 깊은 관계를 영위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개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대학생의 영적 안녕은 대부분의 심리적 안녕 요인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즉 영적인 안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아수용과 심리적 웰빙, 자율성, 개인적인 성장이 영적 안녕과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있다는 것이다(황혜리, 서경현, 김지윤 2011)

영성은 삶의 원리이며 존재와 행위의 원리이다. 행위의 원리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와 존재의 원리인 “나는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있는가” 는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어느 한 존재가 나아가고 움직이는 원리, 곧 그 존재의 존재와 활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적 성숙을 통해 인간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가치관, 방향성을 이끌어 가므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하느님과 친교를 향한 자신이 소명을 확신하게 된다.

## 3. 영적 성숙도 척도의 유형

### 1) 영적 성숙도 척도의 기존 연구

지금까지 개발된 주요 영성 관련 측정 도구를 간단한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영성 관련 측정 도구

척도명	개발자	개발연도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Ellison	1983
영적 성숙도 척도(SMI; Spiritual Maturity Index)	Ellison	1983
영성 측정 도구(Spiritual Assessment Scale)	Howden	1992
영성 척도(Spirituality Scale)	Delaney	2005
한국판 영성측정 도구	오복자 등 번안	2001
한국인을 위한 영성평가 척도	이경열 등 번안	2003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영성 척도로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가 있다. 이 척도는 Paloutzian과 Ellison(1983)이 개발한 것으로써 영적 안녕감을 수직적 차원의 종교적 영적 안녕감(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과 수평적 차원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으로 구조화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영적 안녕감(SWB) 전체가 .89, 종교적 안녕감은 .87, 실존적 안녕감은 .78이었다.

종교적 안녕감은 상위 존재인 신에 대한 인지 및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 상실 등 삶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인 반면, 실존적 안녕감은 자신과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믿음, 가치, 생활양식 등을 형성하도록 하여 대인관계를 통한 사랑과 용서,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종교적 안녕감은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추구하는 영적욕구에 대한 충족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직적 차원에 해당하는 영적 안녕감을 말한

다. 여기서 초월적 존재는 현대적 영성의 측면에서 종교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대상으로 명상과 성찰 등을 통해서도 성취 가능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체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종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Canda& Furman, 1999).

그러나 종교적 안녕감이 수직적 차원에서 초월자 즉, 신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안녕감이라고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안녕감은 유일신인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과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삶을 추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며 안녕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조수환, 2009).

영적 안녕감 척도 중 삶에 있어서의 의미와 목적,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존적 영적안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실존적 영적안녕은 인간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간의 내적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며 희망, 의미, 사랑과 같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완성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오복자, 1997).

영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한 Ellison(1983)은 영적 안녕감 척도의 천정효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적 성숙도 척도(Spiritual Maturity Index, SMI)를 개발하였다. Ellison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발적이면서 자기 훈련이 되어 있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사고하며, 확고한 신앙을 보이지만 교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절대자와 규칙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

지며,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Slater,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반영하는 이 척도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가 .942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이준선, 2011). 영적 성숙도 척도의 타당도 연구를 살펴보면, Ellison이 먼저 개발한 영적 안녕감 척도(1983)의 타당도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즉 종교의 중요성, 하느님에 대한 믿음, 교회참석 횟수, 개인적 헌신의 횟수 등 여러 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Ellison & Smith, 1991). Hall & Edwards (1996)의 연구에서도 신앙 및 영적 성숙 정도와 하느님에 관한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신앙관련 척도 점수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 높은 수렴타당도를 보고하였다.

Howden(1992)은 간호학, 신학, 사회학적, 심리학적, 철학 등 문헌 고찰을 통해 영성의 지표나 속성에 관련된 공통점을 토대로 영성 측정 척도(Spiritual Assessment Scale, SAS, 1992)를 개발했다. Howden의 척도는 영성의 관계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영성의 중요 속성에 따라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상호 관계성 및 초월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916이다. 이 척도는 이론적 차원의 4개 하부 영역에 있어서 2개 차원, 상호관계성과 내적자원의 2개 요인으로 나뉘어져 나타났다. 상호관계성 차원은 타인과의 관계성 요인과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호관계성 두 개 요인으로 나뉘어 나타났고, 내적자원 차원은 균형, 조화, 평화, 상위 존재자와의 관계요인과 곤경의 때에 힘을 주고 안내해 주는 요인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이 척도는 영성 개념 분석을 토대로 영성을 직접 측정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잘된 도구라고 볼 수 있지만 서양의 주요 종교인 유대-그리

스도교 문화권에 기초하여 개발되었기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사용할 때 무리가 있을지의 연구가 필요하다(오복자, 2001). Briggs와 Shoffner(2006)는 미국에서 대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Howden의 이 척도를 이용하여 영성과 우울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영성 점수는 132점이었으며,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Howden의 영성 척도는 오복자 등(2001)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번안되어 한국어판 영성측정도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복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Howden의 영성 척도는 유대-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개발된 영성 측정 도구이기는 하지만, 문항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보편적 영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다양한 종교적 문화권의 우리나라에도 적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오복자, 2001).

Delaney(2005)의 영성 척도(Spirituality Scale: SS)는 인간의 영성 차원을 표현하는 다양한 신념, 직관, 생활방식, 훈련 및 의식(의례)들을 측정하기 위한 통합적인 도구이다. 이 척도는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자기 발견(Self-Discovery), 관계(Relationships), 환경의식(Eco-Awareness)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타당도 .9, 신뢰도는 .94, 재검사 신뢰도는 .85이다. 연구의 모집단은 만성 질병이 있는 성인이었다.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2003)의 ‘한국인을 위한 영성평가 척도’는, 서구에서 제작된 영성 척도들이 주로 유신론적 관점에서 제작되어 동양적 사고를 가진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생과 성

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로 개발되었다. 이 척도에는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 자원, 자각, 연결성 등의 여섯 개 하위요인이 포함되었다. 이 척도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내적 일치도는 .93이다. 이 척도의 장점으로서는 한 개인의 영성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며, 단점으로 교차타당도를 위한 동일한 요인이 추출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의 의의는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성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이고, 서양의 영성 구성요인인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초월성, 연결성의 4차원에다 자각과 자비심의 2개 차원을 포함시켜 6차원으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또한 영성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영적 수련 정도에 따른 대상별, 단계별 영성 프로그램 개발에 착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

Ellison의 영적 안녕감 척도는 종교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잘 변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므로 교회 및 종교 관련 상담 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영적 안녕감 척도의 가장 큰 제한점은 성숙한 종교인을 변별하지 못하는 천정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즉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상한척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최대점수인 120에 가까워서 개인 간 차이를 연구하기 어렵다(강계남, 2004; 이은실과 강계남, 2000). 또한 유대교인의 영적 안녕감 척도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의 점수에서는 천정효

과가 나타났으며,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개의 구성 요인으로 영적 안녕감을 측정하였을 때 총점이 같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나타났다(Genia, 2001).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영성을 측정할 때 이 영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특정한 국교가 없고 여러 종교들의 전통과 문화적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영성 측정의 도구가 없으므로 영성 연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김용환, 최금주, 김승돈, 2009).

영적 안녕감 척도는 영성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측면을 나타내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 영적 안녕감 척도는 서구에서 영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유대-그리스도교적 편향의 영성만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 한계이다(Delaney, 2005).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들이 영성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적 상황에 맞춘 영성 척도가 개발되었다. 그 중 이경열과 김정희, 김동원(2003)에 의해서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주제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용환 등, 2009에서 재인용). 이어서 이은철, 김민정(2010)에 의해서 청소년을 위한 영성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적 성숙도 척도를 구성하고 타당화 하여 가톨릭 영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 4.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 1) 척도 제작의 유의점

이순목(2016)에 의하면, 검사의 성격에 맞는 구성개념 및 검사규모, 검사 대상 모집단, 차원 및 문항 수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검사점수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석 및 사용되는가 그리고 어떤 구성개념(construct)이 평가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구성개념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사는 적절한 규모를 갖춰야 한다. 규모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으로 정의되는데 문항의 수, 걸리는 시간, 사용된 지면이나 공간, 내용적 복잡도 등을 의미한다.

표본크기는 검사가 다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고자 할 때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요인분석에서 문항 수에 대한 표본의 배수는 최소한 5배(Gorsuch, 1974) 내지 10배(Nunnally, 1978)는 되어야 한다. Guilford(1954)는 집단이 아무리 작아도 200명은 넘어야 무리 없는 요인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450명을 표본의 크기로 결정하였다.

검사의 차원성에서 볼 때, 하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 간에는 하나의 차원을 공유하므로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문항은 달라도 그 차원을 향해서 각 문항점수들은 수렴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검사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검사가 몇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즉 몇 개의 구성개념을 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검사 내 다수의 문항들은 목적인 바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며, 각 구성개념 간에 변별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검사 내 개별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지의 정도에 기초해서  $\alpha$ 계수 (Cronbach, 1951; Guttman, 1945)라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계수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에 대한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영성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다양하여 영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성의 구성요인 중 가장 빈번히 다루어져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구성 요인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교성을 포함하여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성요인으로 포함하여 선정하고자 하였다. 몇몇 척도의 구성요인에서 신과의 관계, 삶의 목적,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관계 등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요 구성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영성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과 관계된 경험 요인으로, 신에 대한 인식과 신과의 관계 요인이 있다.

둘째, 개인 내적 자원에 대한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신앙생활의 요인이 있다

셋째, 타인과 세상에 연결 요인으로, 종교적 실천과 공동체와 관계 요인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 3)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문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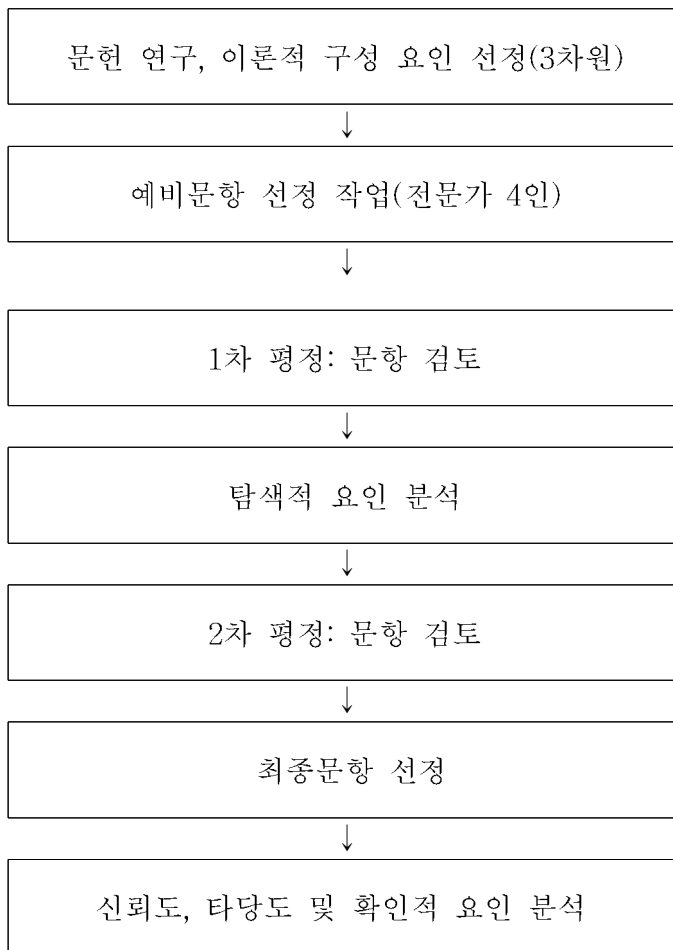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전체 문항은 22문항이고, 3개 요인 즉, 신에 관계된 경험은 총 10문항, 개인 내적 자원은 총 4문항, 타인과 세상의 연결에 관한 문항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I.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개발

#### 1. 예비 문항 개발 및 구성요인 탐색

##### 1) 전체 연구과정

전체 연구과정 및 절차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예비문항 개발 및 선정 작업

본 연구는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서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문헌 연구를 통해 문항 선정 작업을 선행하였다. 가톨릭 신자 심층 면접의 내용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구성 요인을 통해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의 구성 요인 및 문항을 추출하였다.

문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을 선정한 이후에 국문학 박사과정 수료자의 도움을 받아 비슷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항 제거한 후에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심층면담과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장화하였고, 의미가 최대한 잘 전달되도록 단일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각 문장에서 ‘나는’ 이라는 주어를 생략해도 될 경우에는 생략을 해서 통일성을 기하였다.

불명확한 의미의 문항은 선정 작업팀과 논의를 거듭하여 구체적인 문항으로 기술하였다. 수정된 문항에 대해서 가톨릭 대학의 가톨릭 신부이면서 심리학 교수 1인, 심리학 박사이며 임상심리전문가 1인, 심리학 석사 2명의 도움을 받아 신학적인 타당성과 문장의 난해도를 확인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문장들을 제거하였다. 이후 문항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예비 문항 24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 2. 연구절차

연구자가 기존의 문헌들을 근거하여 문항들을 수정, 개발하여 내용타당도 검증 받은 24문항의 구인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지역 거주자 중에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톨릭의 성당의 책임자인 주임 신부님들에게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문항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배부하였고,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배부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9월부터 약 3주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450부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400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1차 연구에 참여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배경에 대한 질문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혼인상태, 신앙 활동 등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질문지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Likert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특성분석

20세에서 59세 사이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문항을 배부하였고, 총 400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중 무성의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n=400)

	빈도	퍼센트
남	105	26.3
여	292	73.0
결측치	3	.7
총계	400	100.0

김희중(2016)의 한국 가톨릭 교회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 남성 신자가 전체 신자중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설문지의 응답자는 26.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가톨릭 신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3>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대 (n=400)

	빈도	퍼센트
20대	60	15.0
30대	31	7.6
40대	99	24.8
50대	177	44.3
결측치	33	8.3
총계	400	100.0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령대를 한정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신자의 중심적 집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60대 이상의 신자들도 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추후에는 이들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4>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력별 (n=400)

	빈도	퍼센트
고졸미만	32	8.0
고졸이상	155	38.7
대졸	157	39.2
대학원이상	55	13.8
결측치	1	0.3
총계	400	100.0

학력은 고졸미만(고교를 졸업하지 못함)가 8.0%로 전체에서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이것은 현재 한국의 교육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력 수준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보인다.

<표 5>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세시기별 (n=400)

	빈도	퍼센트
유아영세	104	26.0
초등학교시절	33	8.3
만12세에서18세	31	7.7
만18세 이후	213	53.2
결측치	19	4.8
총계	400	100.0

가톨릭 신자 중에서 세례를 받은 시기가 유아 때 및 초등학교 시절을 포함하면 34.3 %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약 1/3 정도 차지한다. 18세 이후에 자의로 교회에 입문한 사람들이 전체 신자의 과반수(53.2%)를 넘는 사실은 교회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성인이 되어서 입교한 것으로 풀이되고, 이들의 영적 성숙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표 6>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신앙기간별 (n=400)

	빈도	퍼센트
3년 미만	12	3.0
3년 이상10년 미만	38	9.5
10년 이상20년 미만	82	20.5
20년 이상	250	62.5
결측치	18	4.5
총계	400	100.0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신자들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닌 기간이 오래된 신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7>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신앙별(n=400)

	빈도	퍼센트
본인만 가톨릭 신자	26	6.5
가족 일부만 가톨릭 신자	79	19.8
가족 모두 가톨릭 신자	278	69.5
결측치	17	4.2
총계	400	100.0

한국이 다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 가족 일부 혹은 전부 신자인 가족이 전체의 89.3%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기술 통계 및 요인 분석 검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개발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예비척도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집된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전체와의 상관관계,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요인구

조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고,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사각회전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목록별 결측값은 제외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40 이상)을 확인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 KMO 표본 적합성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5.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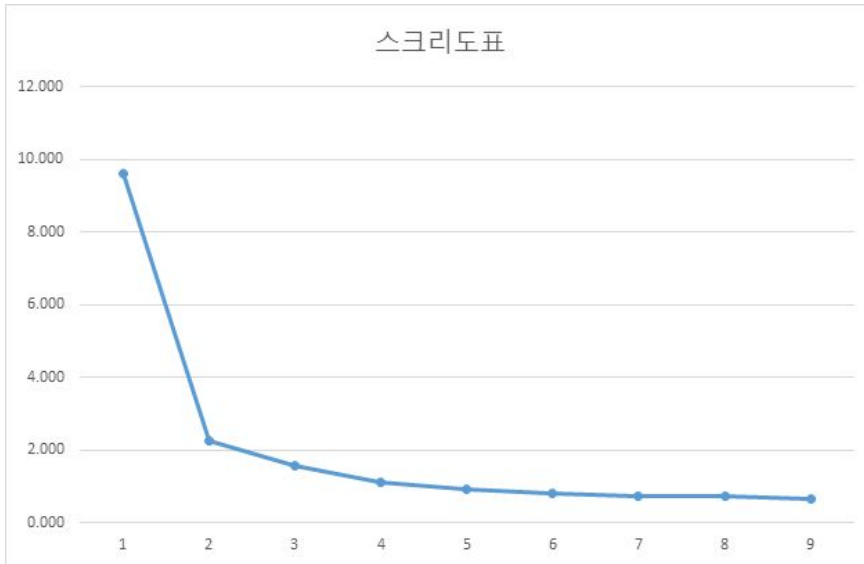
### 1) 신뢰도 분석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3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는 모두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추출 방법은 주축 요인 추출을 하였으며, 회전 방법은 사각회전의 하나인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프로맥스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 2) 고유치 검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를 검토하였다. 24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 문항들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보다 큰 요인은 4개 요인이었다. 그러나 스크리 도표와 이론적 근거 및 가설에 따라 3요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7.11%를 설명하였다. SPSS를 사용한 공통요인분석의 문제에 의거하여 분모를 변환하여 계

산하였다(이순목, 1995).



<그림 1> 스크리 도표: 가톨릭 신자 성숙도 척도의 고유값 분석

<표 8>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고유값

요인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공함 로딩			회전 제공함 로딩 <sup>a</sup>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률(%)	
1	9.589	39.953	39.953	9.150	38.126	38.126	8.407
2	2.275	9.478	49.431	1.769	7.370	45.497	6.472
3	1.560	6.500	55.931	.952	3.969	49.466	5.279

<표 9>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지수		.93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833.239
	자유도	276
	유의확률	0.000

분석 결과 <표 9>에 제시한 바처럼, KMO 값이 .933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chi^2=4833.239$ 로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 3)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최종 문항 내용 및 요인 계수

<표 10>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최종 문항 내용 및 요인 계수

요인 번호	문항	요인		
		1	2	3
	3 하느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947	-.029	-.154
	1 하느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871	.082	-.127
요인 1	10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하느님을 신뢰한다.	.871	-.050	-.066
신에 대한 신뢰	7 하느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시다.	.868	.047	-.181
(10 문항)	15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다.	.826	-.101	.091
	5 하느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801	-.095	.131
	22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은 그것을 극복하는 큰 힘이다.	.737	.066	.011
	11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	.699	.119	.099

	13	하느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낀다.	.666	-.025	.164
	19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회복된 적이 있다.	.585	.073	.124
요인 2 타인과의 관계 (8문항)	2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004	.727	-.198
	4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다.	.089	.722	-.157
	6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098	.711	-.055
	12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008	.689	.006
	16	대체로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 잘 공감하고 표현한다.	-.018	.521	.143
	20	동료들이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011	.509	.025
	8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려고 한다.	.058	.490	.237
	17	사회생활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124	.436	.152
요인 3 개인 내적 자원 (4문항)	18	내 인생에 성취감을 갖는다.	.136	-.093	.667
	9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67	-.009	.660
	14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083	.015	.536
	21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23	-.074	.534

<표 10>는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후 최종 문항이다. 3요인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였다.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 1은 ‘신에 대한 신뢰’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영성에서 개념 정의를 할 때 신 혹은 절대자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요인 1에서는 영적 성숙이라는 점이 신에 대

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파악이 되고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가톨릭 신자가 자신이 믿는 하느님과의 믿음에 있어서 신에 대한 인식, 신과 자신과의 관계, 신에 대한 의지 및 개인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값은 9.589 이고, 분산설명비율은 39.95%이다.

요인 2는 '타인과의 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영성이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실천과 공동체와의 관계로 나누어진다. 영적 성숙에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중요시 한 점이 문항에 반영되어 있고, 정의 · 평화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체 속에서의 태도가 중요하기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값은 2.275이고, 분산설명비율은 9.48%이다.

요인 3은 '개인 내적 자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영성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자신에 대한 탐색, 자신을 알아차림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값은 1.560 이고, 분산설명비율은 6.50%이다.

탐색적 요인 분석 후 SPSS 20.0 으로 형태 계속 행렬을 살펴본 결과, 이 과정에서 요인 계수가 .4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이지만 요인의 설명을 높이기 위해 해당 요인에 적합하지 않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 총 24개의 예비 문항에서 총 22문항으로 최종 문항이 선정되었다.

## IV.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타당화 연구

### 1. 연구절차

연구자가 제작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2차 설문 조사를 서울·경기, 충청, 전라, 기타 지역 거주자 중에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톨릭의 성당의 책임자인 주임 신부님들에게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문항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약 3주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230부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8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차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배경에 대한 질문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신앙 기간, 월수입 등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 이하에 제시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특성분석

20세에서 59세 사이의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문항을 배부하였고, 총 189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 중 무성의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t$ 검정 및 분산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별 빈도

김희중(2016)의 한국 가톨릭 교회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 남성 신자가 전체 신자중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설문지의 응답자는 19.6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가톨릭 신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현장에서는 통계 숫자만큼의 남성들이 교회의 전례 등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에 응답률이 낮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하위 집단별 동일 크기가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답률이 낮아서 통계적인 의미가 적을 수 있다.

<표 1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n=189)

성별	빈도	퍼센트
남	37	19.6
여	151	79.9
결측치	1	0.5
총계	189	100.0

### 2) 성별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신에 대한 신뢰 ( $t(180)=-2.74, p<.01$ )과 타인과의 관계 ( $t(181)=-2.07, p<.05$ )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개인 내적 자원 ( $t(184)=-.73, ns$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과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으나, 개인내적자원은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표 12> 성별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하위요인	남(n=37)	여(n=152)	t
	M(SD)	M(SD)	
신에 대한 신뢰	47.11(9.44)	51.17 (7.67)	-2.74**
타인과의 관계	35.94(4.66)	37.63(4.33)	-2.07*
개인 내적 자원	17.22(3.36)	17.60(2.63)	-.73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연령대별 빈도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령별 표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교회의 참여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자료에서 20대의 설문 응답률(7.9%)로 낮게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20대의 참여율은 매우 낮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대별 (n=189)

연령	빈도	퍼센트
20대	15	7.9
30대	21	11.1
40대	64	33.9
50대	83	43.9
결측치	6	3.2
총계	189	100.0

4) 연령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연령대에 따라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개인내적자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먼저 신에 대한 신뢰는 50대가 나머지 연령대 모두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 $d=5.55$ ,  $p<.05$ ), 30대( $d=8.64$ ,  $p<.001$ ), 40대( $d=5.05$ ,  $p<.001$ )). 그러나 나머지 연령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타인과의 관계는 50대가 30대( $d=4.54$ ,  $p<.001$ ), 40대( $d=2.16$ ,  $p<.01$ )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연령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 내적 자원은 50대가 30대( $d=1.83$ ,  $p<.01$ ), 40대( $d=1.33$ ,  $p<.01$ )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연령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0대가 세 가지 요인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개인 내적 자원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았다.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영적성숙도가 향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4> 연령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하위요인	20대		30대		40대		50대		F
	M	(SD)	M	(SD)	M	(SD)	M	(SD)	
신에 대한 신뢰	47.93	(6.19)	44.84	(9.65)	48.43	(8.97)	53.48	(6.24)	9.65***
타인과의 관계	35.07	(4.20)	34.35	(4.12)	36.73	(4.60)	38.89	(3.84)	9.08***
개인 내적 자원	17.27	(2.99)	16.48	(2.42)	16.98	(2.90)	18.31	(2.59)	4.25**

\* $p < .05$ . \*\* $p < .01$ . \*\*\* $p < .001$ .

#### 5) 학력별 빈도

한국은 전체적으로 고학력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신자가 전체의 20.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학력을 보이고 있다. 고졸이하가 24.3%로 낮은 편으로 보인다.

<표 15>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력별 (n=189)

학력	빈도	퍼센트
고졸이하	46	24.3
대졸이하	105	55.6
대학원이상	38	20.1
총계	189	100.0

#### 6) 학력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학력에 따라 신에 대한 신뢰( $F(2, 179)=6.28, p < .001$ )와 타인과의 관계( $F(2, 180)=8.31, p < .001$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개인내적자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83)=1.93, ns$ ). 각 하위요인에서 학력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먼저 신에 대한 신뢰는 ‘대학원 이상’이 나머지 다른 학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졸이하( $d=-6.31, p < .001$ ), 대졸이하( $d=-3.70, p < .01$ )). 그러나 ‘고졸 이하’와 ‘대학교 이하’의 학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2.61$ ,  $ns$ ). 타인과의 관계는 ‘고졸이하’가 나머지 학력 수준 모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대졸이하( $d=2.54$ ,  $p<.001$ ), 대학원( $d=3.71$ ,  $p<.001$ )). 그러나 ‘대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1.17$ ,  $ns$ ).

학력 면에서 볼 때 고졸 이하의 그룹이 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앙심이나 사회생활의 적응력이 영적성숙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6> 학력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하위요인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		F
	M	(SD)	M	(SD)	M	(SD)	
신에 대한 신뢰	53.09	(7.27)	50.48	(7.53)	46.78	(9.73)	6.28***
타인과의 관계	39.50	(3.66)	36.96	(4.60)	35.79	(3.90)	8.31***
개인 내적 자원	18.18	(2.40)	17.42	(2.89)	17.03	(2.80)	1.93

\* $p<.05$ . \*\* $p<.01$ . \*\*\* $p<.001$ .

#### 7) 신앙생활 기간별 빈도(n=189)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신자들이 전체의 86.20%를 차지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닌 기간이 오래된 신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7>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신앙생활 기간별 (n=189)

신앙생활기간	빈도	퍼센트
3년 미만	9	4.8
3년 이상 ~ 10년 미만	28	14.8
10년 이상 ~ 20년 미만	37	19.6
20년 이상	98	51.8
결측치	17	9.0
총계	189	100.0

8) 신앙생활 기간의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신앙생활 기간에 따라 신에 대한 신뢰는 유의하였으나( $F(3, 165)=3.75$ ,  $p<.05$ ), 타인과의 관계( $F(3, 165)=1.86$ ,  $ns$ )와 개인 내적 자원( $F(3, 166)=.66$ ,  $ns$ )은 유의하지 않았다.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신앙 생활력에 따른 영세시기 간의 차이는 ‘20년 이상’이 ‘3년 이상 10년 미만’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d=4.45$ ,  $p<.05$ ), 나머지 영세시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앙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영적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표 18> 신앙생활 기간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하위요인	3년 미만		3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F
	M	(SD)	M	(SD)	M	(SD)	M	(SD)	
신에 대한 신뢰	46.11	(8.10)	47.36	(8.66)	51.11	(7.07)	51.80	(7.15)	3.75*
타인과의 관계	34.56	(3.84)	37.26	(3.80)	38.19	(3.52)	37.38	(4.46)	1.86
개인 내적 자원	17.00	(1.66)	17.50	(2.60)	17.17	(2.39)	17.81	(2.82)	.66

\* $p < .05$ . \*\* $p < .01$ . \*\*\* $p < .001$ .

9) 가족 내 종교 상황 차이별 빈도(n=189)

한국이 다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 가족 일부 혹은 전부 신자인 가족이 전체의 84.9%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9>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내 종교 상황별 (n=189)

가족 내 종교 상황별	빈도	퍼센트
본인만 가톨릭 신자	13	6.9
가족 일부만 가톨릭 신자	39	20.6
가족 모두 가톨릭 신자	121	64.0
결측치	16	8.5
총계	189	100.0

10) 가족 내 종교 상황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가족종교상황에 따라 신에 대한 신뢰는 유의하였으나( $F(2, 167)=6.50, p < .001$ ), 타인과의 관계( $F(2, 167)=1.04, ns$ )와 개인 내적 자원( $F(2, 168)=1.29, ns$ )은 유의하지 않았다.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신에 대한 신뢰는 가족종교상황에 따라 ‘본인만 신자’인 경우는 ‘가족일부만 신자’( $d=-7.94, p < .001$ ), ‘가족 모두 신자’( $d=-7.56, p < .001$ )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가족일부만 신자’와 ‘가족 모두 신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38, ns$ ).

<표 20> 가족 내 종교 상황별 차이에 따른 영적성숙도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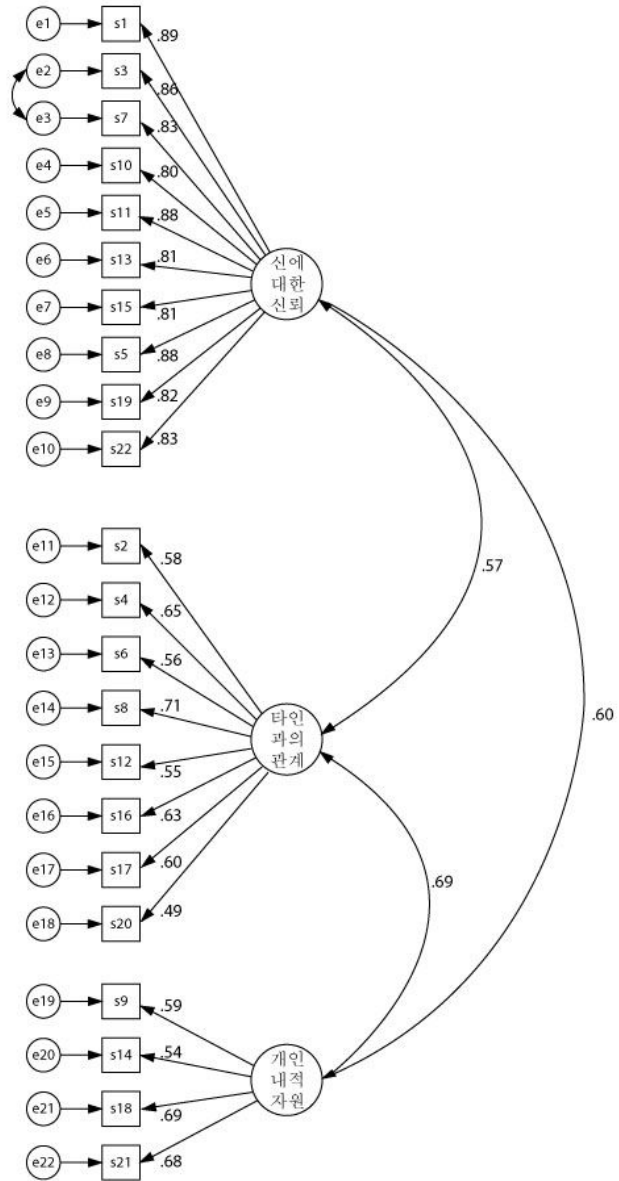
하위요인	본인만 신자		가족 일부만 신자		가족 모두 신자		F
	M	(SD)	M	(SD)	M	(SD)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43.62	(8.77)	51.55	(6.60)	51.18	(7.45)	6.50***
개인 내적 자원	36.00	(4.07)	37.16	(4.58)	37.70	(4.04)	1.04
	16.62	(2.99)	17.97	(2.54)	17.58	(2.63)	1.29

### 3. 분석방법

#### 1) 확인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 분석은 연구자가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한 요인 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 검사에도 사용된다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밝혀진 측정 모형이 다른 집단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본 척도의 요인구조 모형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인 구인 타당도 검증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그림 2>와 같이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과정에서 수정지수를 확인해서 해당 문항의 오차간의 상관관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서 수정 지수를 확인한 결과 척도 3과 척도 7에 오차 항을 연결하는 것이 적합하게 나타나서 오차항간의 상관관을 설정하였다. 척도 3과 척도 7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 <그림 2> 확인적 요인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앞의 연구에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전문가의 내용타당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3요인, 22문항이 선정되었고 이러한 요인 구조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모형 합치도지수의 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홍세희, 2000)을 고려하여  $\chi^2$  값과 함께 RMSEA, CFI와 TLI 등의 다양한 합치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하였다. CFI와 TLI 값 .90 이상이 좋은 합치도라 할 수 있고, 절대지수인 RMSEA의 값이 .10 이하인 경우에 수용할 만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Kline, 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 4. 연구결과

### ① 합치도 지수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는 .069로 괜찮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CFI와 TLI 값 또한 .929과 .920이기에 좋은 모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21>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측정 모형에 대한 합치도 지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
388.387	205	.920	.929	.069

## ② 요인계수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과 측정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요인계수는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요인계수는 신에 대한 신뢰에서 .80~.90 사이로 나타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46~.71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내적 자원에서는 .55~.68로 나타나 문항들이 각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표 2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계수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 요인계수	S.E	t
	→ s3	1.00	.86		
	→ s1	1.12	.89	.07	16.79***
	→ s10	.97	.80	.07	13.81***
	→ s7	1.06	.83	.05	21.24***
신에 대한 신뢰	→ s15	1.03	.81	.07	14.02***
	→ s5	1.15	.88	.07	16.59***
	→ s22	1.11	.83	.07	14.89***
	→ s11	1.19	.88	.07	16.36***
	→ s13	1.13	.81	.08	14.16***
	→ s19	1.06	.82	.07	14.46***

	→	s2	1.00	.58		
	→	s4	1.45	.65	.22	6.73***
	→	s6	.88	.56	.15	6.10***
타인 과의 관계	→	s8	1.42	.71	.20	7.16***
	→	s12	.83	.55	.14	6.01***
	→	s16	1.27	.63	.19	6.61***
	→	s17	1.30	.60	.20	6.37***
	→	s20	.86	.49	.16	5.47***
	→	s9	1.00	.59		
개인 내적 자원	→	s14	.91	.54	.16	5.59***
	→	s18	1.36	.69	.21	6.58***
	→	s21	1.22	.68	.19	6.52***

\*\*\*,  $p < .001$

### ③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

<표 23>에서 나타난 결과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는 각 3요인으로 나뉘어서 나타나며, 서로의 전체와 각 요인간의 상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잠재변수를 구인하는 모든 측정변수가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계수도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가톨릭 신자 영적성숙도 척도의 전체와 요인간 및 각 요인간 상관관계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개인 내적자원	가톨릭 신자 영적성숙도 합계
신에 대한 신뢰	1			
타인과의 관계	.500**	1		
개인 내적자원	.482**	.509**	1	
가톨릭 신자 영적성숙도합계	.938**	.741**	.672**	1

#### ④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타 척도와의 수렴, 변별 타당도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기존의 Ellison(1983)의 영적 안녕감 척도와 .790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기존의 Ellison(1983)의 영적 성숙도 척도와 .750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표 24> Ellison의 영적 안녕감 척도, Ellison의 영적 성숙도 척도와와의 수렴, 변별 타당도

	신 대 신뢰	에 한 신뢰	타 인 의 계	과 관 계	개 내 적 자 원	가 톨 릭 신 자 영 적 성 숙 도 합 계	Ellison 영 적 안 녕 감 척 도	Ellison 영 적 성 숙 도 척 도
신에 대한 신뢰	1							
타인과의 관계	.500**		1					
개인 내적자원	.482**		.509**	1				
가톨릭 신자 영적성숙도 합계	.938**		.741**	.672**	1			
Ellison 영적안녕감 척도	.790**		.463**	.532**	.798**	1		
Ellison 영적성숙도 척도	.750**		.468**	.362**	.740**	.740**	1	

⑤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우울, 상태불안 척도와의 준거 관련 타당도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3 (개인 내적 자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

타냈기에 개인적으로 성취감이 낮거나,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은 사람들은 우울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와 상태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3(개인 내적 자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기에 개인적으로 성취감이 낮거나,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은 사람들은 불안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25> 우울, 상태 불안 척도와의 상관관계

	신에 대한 신뢰	타인 과의 관계	개인 내적 자원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합계	우울	상태 불안
신에 대한 신뢰	1					
타인과의 관 계	.500**	1				
개인 내적자 원	.482**	.509**	1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합계	.938**	.741**	.672**	1		
우울	-.183**	-.129	-.449**	-.249**	1	
상태 불안	-.381**	-.344**	-.508**	-.462**		1

## V.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정서 특성인 정적, 관계 중심적 성향을 반영하는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를 개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척도를 통해 신자들이 현재의 상황보다 자신이 갈망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진술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성숙도에 대한 구성 요인 탐색을 통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를 개발하고, 둘째, 영적 성숙도 척도를 타당화 하는 것이다.

기존의 척도들이 천정효과를 갖거나 서구의 영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유대-그리스도교적 편향의 영성만을 반영(Delaney, 2005)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몇 가지 척도가 개발되었지만, 특정한 국교가 없고 여러 종교들의 전통과 문화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되어 있는 영성 측정의 도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주제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김용환 등, 2009). 물론 청소년을 위한 영성 척도 등도 개발되었으나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서 “가톨릭 신자를 위한 영적 성숙도 척도”를 구성하고 타당화 하여 가톨릭 영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기존 척도의 탐색을 통해서 잠재구성 요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심층 면담하여 문항으로 추출해 냈다.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개인 내적 자원으로 잠재 구성 요인을 설정하였고, 연구자가 잠재적 구성 요인으로 가정한 3개 요인으로 분류하기 위해 문항분류 작업과 평정작업을 실시하였다. 평정과정을 거쳐 추출된 문항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 척도 문항들은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을 돕는 요인 분석을 통해 세 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비교적 타당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 3(개인 내적 자원)이 네 개의 문항으로 일반적으로 한 구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최소 문항 수로 요구되는 5개(성태제, 2007)에 미치지 못하였다. 만일 척도 문항 제작 단계에서 보다 많은 수의 문항이 포함되었더라면 각 하위요인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선정되어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성요인별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과 측정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 1은 ‘신에 대한 신뢰’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영성에서 개념 정의를 할 때 신 혹은 절대자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요인 1에서는 영적 성숙이라는 점이 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파악이 되고 그러한 내용(예: 하느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낀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하느님을 신뢰한다.)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가톨릭 신자가 자신이 믿는 하느님과 믿음을 있어서 신에 대한 인식, 신과

자신과의 관계, 신에 대한 의지 및 개인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의 의미는 절대자인 신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인은 절대자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의 말씀에 따르고 노력을 한다. 공동 번역 성서(2015)의 루가 복음서 10장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신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에 대한 신뢰’요인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영성 척도인 영적 안녕감 척도는 Paloutzian과 Ellison(1983)이 개발한 것으로써 영적 안녕감을 수직적 차원의 종교적 영적 안녕감(Religious Spiritual Well-being)과 수평적 차원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종교적 안녕감은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추구하는 영적욕구에 대한 충족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직적 차원에 해당하는 영적 안녕감을 말한다. Canda& Furman(1999)에 따르면 초월적 존재는 현대적 영성의 측면에서 종교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대상으로 명상과 성찰 등을 통해서도 성취 가능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체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종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교적 안녕감이 수직적 차원에서 초월자 즉, 신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안녕감이라고 정의할 때, 가톨릭 신자의

종교적 안녕감은 유일신인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영적 성숙도 척도(Spiritual Maturity Index, SMI)는 영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한 Ellison(1983)이 영적 안녕감 척도의 천정효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절대자와 규칙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2003)의 ‘한국인을 위한 영성평가 척도’에도 여섯 개의 하위 요인 중 초월성이 포함되어 있다. Mascaro, M., Rosen, D.H., & Morey, L.C., (2006)가 개발한 영적 의미 척도(Spiritual Meaning Scale: SMS)는 조성훈, 안창일, 이현수(2009)에 의해 번안되었는데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에는 ‘초월적 힘의 인식’이라는 요인 구조가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의 거의 대부분에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에 대한 신뢰라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는 절대자인 신, 하느님과의 만남이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영성에도 이의 중요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요인 2는 ‘타인과의 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영성이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타인과의 관계는 종교적 실천과 공동체와의 관계로 나누어진다. 영적 성숙에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중요시 한 점이 문항에 반영(예: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다.) 되어 있고, 정의·평화에 대한 내용(사회생활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체 속에서의 태도가 중요하기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내용(예: 대체로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 잘 공감하고 표현한다.)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루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문항에는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다.’ ‘사회생활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행동하는 영성과도 관계가 있다. 이전의 연구에도 영성의 이런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Burkhardt(1989)는 조화로운 상관관계성으로, Howden(1992)은 상호연결성을, Ingersoll(1995)는 관계성, 현재집중, 용서를, Westgate(1996)는 공동체로, Elkins, Hedstrom, Hughes, Leaf 및 Saunders(1998)는 타인에 대한 이타주의적인 태도로, 오복자와 강경아(2001)는 관계성으로, 김후자(2001)는 조화로운 관계의 능력, 자기 통합의 능력을 강조하였다(조삼복, 2012에서 재인용).

즉, 영성에는 신과의 신뢰 관계와 개인 내적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참된 영성이라 보기 어렵다. 오복자와 강경아(2001)는 영성이란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자신, 타인 및 상위 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삶의 역동적, 창조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경험하게 하며 그 결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 및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영적인 태도 및 행위라고 한다.

Paloutzian & Ellison(1982)은 수직적 차원의 신과의 관계와 수평적 차원의 자신, 타인, 사회/환경과의 관계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고 연결성을 추구하며, 종교적 활동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활동인 사랑, 절제, 자기초월, 평안, 자아 존중, 희망, 자기수용, 용서, 기도, 종교적 실천, 이웃 봉사, 기쁨과 감사의 삶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과의 만남이 있고 난 뒤에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원을 탐색하여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

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요인은 앞선 2요인(신에 대한 신뢰, 개인 내적 자원)이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인 3은 ‘개인 내적 자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영성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자기 긍정 (예: 내 인생에 성취감을 갖는다), 자신에 대한 탐색, 자신을 알아차림(예: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에서 확인되었듯이 그리스도 영적 성숙도는 각 3요인으로 나뉘어서 나타나며, 전체와 각 요인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성 1요인(신에 대한 신뢰)은 영성 2요인(타인과의 관계)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고, 영성 1요인(신에 대한 신뢰)은 영성 3요인(개인 내적 자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영성 2요인(타인과의 관계)은 영성 3요인(개인 내적 자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가톨릭 신자 영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신과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맺고 있음, 타인과의 관계 맺음, 개인 내적 자원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영성 척도가 서로간의 비슷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보다 통합적으로 잘 측정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들은 세 요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톨릭 신자의 영성 성숙도를 측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만약 척도의 요인 1인 신에 대한 신뢰심은 강하지만, 척도의 요인 2인 대인관계가 낮다면 균형 있게 발전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척도의 결과를 분석해서 자기 영성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반대로 척도의 요인 1인 신에 대한 믿음을 등한시하지만 요인 2인 대인관계만을 강조하고 살아간다면 영적 성장의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개발 및 활용으로 신과 더 깊은 관계를 영위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영성과 정신건강이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Miller & Thorensen, 2003; Moberg, 2005; Underwood & Teresi, 2002; MacDonald & Holland, 2003). 예를 들어 Hadzic(2011)은 영성은 건강한 생활 양식을 계발시키고, 심리사회적 지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 공포, 분노, 좌절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영성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비 가톨릭 신자와 다를 수 있으며, 견디고 수용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oreira-Almeida, Neto, & Koeig, 2006; Hadzic, 2011에서 재인용).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적 정서를 받아들이고 조절하는데 영적 성숙도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내적 자원에 해당되는 요인이 우울 척도(BDI), 상태 불안 척도와 높은 역상관을 나타내었는데 다음의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MacDonald(2000)가 개발한 ESI(Expressions of Spirituality Inventory)에서 실존적 웰빙 소척도와 낮은 임상척도 점수가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Underwood & Teresi(2002)도 일상생활의 영적 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과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고, 음주, 불안, 우울증상 등은 낮다고 하였다(이예나, 201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개인 내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을 기존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Paloutzian과 Ellison(1983)의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Delaney(2005)의 영성 척도(Spirituality Scale)는 인간의 영성 차원을 표현하는 다양한 신념, 직관, 생활방식, 훈련 및 의식(의례)들을 측정하기 위한 통합적인 도구로 여기에서도 자기 발견에 관한 요인이 나타났다.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2003)의 ‘한국인을 위한 영성평가 척도’ 척도의 여섯 개 하위요인도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 자원, 자각을 포함하고 있다. 김후자(2001)가 한국인의 영적건강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 연구에도 한국인의 영적건강에서 자기 충만의 능력, 자기 통합의 능력, 자기 인식의 능력이 다섯 가지 속성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영적 성숙도에는 자신의 삶 혹은 자기 인식 등의 대한 요인들이 포함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Moberg(2005)의 주장에 따르면 영성이 웰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하게 시사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된 연구에 의해 확실히 지지되지 못했다. 그는 영성과 정신건강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성급한 적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정의를 불분명하게 내리거나,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연구 방법에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종교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와 같은 성급한 결론이 내려진 경우가 존재한다(Levin, 1996; Moberg, 2005에서 재인용).

기존 연구에서 많은 문헌들이 영성과 건강 또는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영성을 인간의 적응과 성장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해온

것을 고려할 때(Frankl, 2005; 이시형 역, Tillich, 2006; 차성구 역)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가 중요하리라 생각되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이예나, 201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개인 내적 차원의 문항수가 충분치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다른 두 요인과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며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의 한 요인으로 밝혀진바 영성과 정신건강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측정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 척도의 평가를 통해서 신자 개인은 신, 타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영적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안내, 지도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을 Ellison도 주장하였는데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발적이면서 자기 훈련이 되어 있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사고하며, 확고한 신앙을 보이지만 교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절대자와 규칙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며,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Slater, 1999에서 재인용).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도 척도의 구성요인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함으로써 영성관련 기존척도가 특정영역만 반영한 점을 보완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위요인에 개인내적 자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우울척도(BDI), 상태 불안 척도와 함께 사용되어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에 대한 평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며 영성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척도와의 관련성을 비교 확인하였는데,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도 척도는 Ellison(1983)의 ‘영적 안녕감 척도’ 뿐 아니라, ‘영적 성숙도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 영적 안

녕감 및 영적 성숙도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 척도(BDI)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표 25>, 특히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3 (개인 내적 자원)과 높은 역상관을 나타냈으며 상태 불안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숙도 척도의 요인3 (개인 내적 자원)과 높은 역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개인적으로 성취감이 낮거나,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은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적안녕과 관련된 영성이 높으면 우울이 낮아지고 있음(강계남, 2003)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 통계학적인 면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 요인1(신에 대한 신뢰)과 요인2(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여성이 더 높게 나왔기에 남성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령대에서는 50대가 세 가지 요인 신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관계, 개인 내적 자원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았다.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영적성숙도가 향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앙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영적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 밖에 조사된 다른 자료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보인다.

기존의 척도는 영적 성숙 방향성만을 연구하였다면, 본 척도는 영적지각, 타인지각, 자გი지각이 함께 다루어져 어우러진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인격적 성장과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척도의 유용성은 신체적, 심리 정신적, 영성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균형 있게 탐색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I.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1. 연구의 의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이론을 다른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대한 구성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척도는 서구 문화 중심의 문항과 다르게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는 한국의 다종교적 성향, 사회 문화적으로 관계 지향적 태도, 타인지각에 민감한 영향을 문항구성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둘째,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에 대한 기대 구성 요인을 탐색하고 척도를 개발한 것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척도의 하위요인을 3개로 나누어서 전체를 통합한 점이 특색이라고 하겠다. 영적 성숙을 절대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 자기 지각을 함께 아우르면서 전인적 통합 과정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셋째,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성숙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여, 자신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신자들의 영적 성숙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국 실정에 적합한 영적 성숙도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기존의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낸 점에 의의를 둔다. 관계 중심의 문화인 한국과 서구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점이 다

르다고 보고, 이에 해당 되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예를 들면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들이 한국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정서 특성인 정적, 관계 중심적 성향을 반영하는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를 개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척도를 통해 신자들이 현재의 상황보다 자신이 갈망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척도가 영적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신체적,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의 균형 잡힌 돌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가톨릭 신자인데 전체 표집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희중(2016)의 한국 가톨릭 교회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는 총 5,655,504명으로 전 인구의 10.7%에 이른다. 이 중에서 남성 신자가 전체 신자중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설문지의 응답자는 19.2%에 지나지 않기에 가톨릭 신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다. 실제로는 남성의 교회 출석률이 낮아서 응답률이 낮다고 예측할 수 있다. 추후연구에는 연구대상자에서 남성의 비중을 높여서 보다 타당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검사를 채택했기 때문에 영적 성숙 수준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한 평가가 추가되도록 한다면 영적 성숙 수준에 따른 평가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주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영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적 성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적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본 척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목 현장에서 실제 척도 검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해 보지 않음에 따른 제한점이 있다.

넷째,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심리적으로 성숙하다고 추론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체 교회가 아닌 일부 교회의 신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 방법에 있어 양적 연구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했다. 추후에는 좀 더 정확하고 폭넓은 연구를 위하여 직접 면담, 교회 활동의 사례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관찰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영적 성숙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

졌지만 교회에서 신자의 건강을 위하여 영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였다. 추후에 신자의 영적 성숙과 관련하여 심리 정서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척도를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리전문가(임상, 상담 심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를 하여, 피검사자가 개발된 척도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한기에 추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다섯째, 한계에서도 서술을 하였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영적 성숙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지만, 이런 심리적 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계남(2004). 신앙성숙척도의 타당도 검증: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7, 제1호, 141-163.
- 고효정, 송원영(2014). 중년기 여성의 영성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호함에 대한 감내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49-249
- 기획재정부 통계청(2010). 2010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서울: 통계청.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아카데미.
- 김동기(2003).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용환, 최금주, 김승돈(2009). 한국에서의 영성 관련 연구 동향분석 및 학문적  
합의. 상담학연구, 10(2), 813-829.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홍규, 박정희(2000). 부모 · 자녀간의 심리 · 사회성숙도 관계 연구. 인하교  
육연구, 6, 223-260.
- 김후자(2001). 한국인의 영적 건강 속성에 관한 탐색 : Focus Group 연구  
방법 적용.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중(2016). 한국 가톨릭 교회 통계. 한국가톨릭중앙협의회. 서울.
- 노이경(2010). 한국성인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대한성서공회 편집부 (2015).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 박성현, 성승연(2013). 한국판 인본주의적-현상적 영성 지향 척도(K-HPSOI)의 타당화 연구. **인문학논총**, 32, 181-209.
- 박은민(2012).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2, (7), 497-509.
- 박정희(2002). 부모의 가정교육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성, 정태연 (2011). 한국인의 종교성에 대한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검증. **종교연구**, 62, 41-69
- 박준양(2009). 영적 돌봄의 인간학적-신학적 의미. spirituality conference 발표 자료집 15-26. 서울: 가톨릭간호대학.
- 부영호(2006).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장에 관한 발달 심리학적 고찰. 광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2005).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17(4): 1077-1095.
- 서경현, 전겸구(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성태제 (2007). (SPSS / AMOS를 이용한)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오복자, 강경아(2000). 영성 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5), 1145-1155.
- 오복자(1997). 영적 안녕과 삶의 질과의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9(2), 189-198.
- 오윤선(2015).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 복음과 상담, 3(2), 223-254.
- 윤혜영, 김근향(2015).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 단축형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8, 404-404 .
-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4), 711-728.
- 이순목(1995). SPSS를 사용한 공통요인분석의 문제점. **교육평가연구**, 8, 1, 5-33
-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순목(2016). **최신심리평가**. 심리검사의 측정이론(2장 개정판 원고). 하나의 학사.
- 이예나(2013).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및 심리학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실, 강계남(2000). 신앙성향 및 발달 척도의 양호도 탐색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 141-171.
- 이은철, 김민정(2010). 청소년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열린교육연구**, 18, 3, 243-263.
- 이정수(2010).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통한 신앙 성숙 평가척도 개발. **그리스도교교육정보**, 26집, 193-227.
- 이준선(2014). 기혼 그리스도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그리스도교상담학회지**, 25, 1, 157 - 195.
- 정미자(2010).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ASSET Model 적용**.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성덕 · 이종범 · 박형배 · 김진성 · 배대석 · 이광현 · 사공정규 · 송창진 · 배진우(2001). 한국판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학*, 40(2), 230-242.
- 조삼복, 김성희(2012). 대학생용 영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 2, 877-890.
- 조성훈, 안창일, 이현수(2009). 한국판 영적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87-704.
- 조수환(2008). *중년기 크리스천 남성의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이 자아 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옥진(2005). *영성과 심리상담*. 서울: 가톨릭출판사.
- 한국갤럽(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제4차 비교조사*. 서울: 한국갤럽.
- 한국갤럽(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상담학회. 임상: 19*, 161-177.
- 황혜리, 서경현, 김지윤 (2011).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09-724.
- Anandarajah, G., & Hight, E. (2001). Spirituality and medical practice: Using the HOPE questions as a practical tool for spiritual assessment. *American Family Physician*, 63(1), 81 - 89.
- Belavich, T. G., et al. (1997). Religion and spirituality: Unfuzzifying the fuzz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549 - 64.
- Benson, P., & Roehlkepartain. E. (2008). Spiritual development: A missing priority in youth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18, 13 - 28.*

- Boswell, G. E., & Boswell-Ford, K. C. (2010). Testing a SEM model of two religious concepts and experiential spirituality. *Journal of Religious Health, 49(2)*, 200 - 11.
- Bowe(2013). *영성으로 읽는 성경*. 박은미 이규명 역. 서울 성바오로.
- Bradshaw, A.(1994). *Lighting the Lamp: the Spiritual Dimension of Nursing Care*. Scutari Press, London.
- Brown, D (2008). *Assesment of Spirituality in Couns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a dissertation submitted Auburn University.
- Bryson, K. A. (2004). Spirituality, meaning, and transcendence.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2*, 321 - 328.
- Bufford, R., Paloutzian, R., Ellison, C. (1991). Norms for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1)*, 56-70.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69-77.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 341-357.
- Burnard, P. (1988) Searching for meaning. *Nursing Times 84(37)*, suffering in a caring cul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9)*. 111-117.
- Canda, E. R. (1988). Conceptualizing spiritual for social work: Insights form diverse perspectives. *Social thought, 14(1)*, 30-46.
- Canda, E. R. (1997). *Spirituality*. In R. L. Edwards (Ed.),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pp. 299-309). Washington, DC: NASW Press.

- Canda, E. R & Furman, L. (1999). *Spiritua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New York: Free Press.
- Darden, R. A. (2005). Spiritual assessment and treatment strategies. *The Remuda Review*, 4(2), 14-16.
- Davis, T.L., Kerr, B.A., & Kurpius, S.E.R. (2003). Meaning, purpose, and religiosity in at risk youth: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pirit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1, 356-365.
- Delaney, C. (2005). The Spirituality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of a Holistic Instrument to Assess the Human Spiritual Dimension. *Journal of Holistic Nursing*, 23, 2. 145-167.
- Dew, R. E., Daniel, S. S., Goldston, D. B., McCall, W. V., Kuchibhatla, M., Schleifer, C., et al. (2010). A prospective study of religion/spiritu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0, 1-3, 149-157.
- DiLorenzo, P., Johnson, R., & Bussey, M. (2001). The role of spirituality in the recovery process. *Child Welfare*, 80(2), 257 - 273.
- Dyson, J., Cobb, M., & Formand, D. (1997). The meaning of spirituality: a interaction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 1183-1188
- Elkins, D. N., Hedstrom, L. J., Hughes, L. L., Leaf, J. K., & Saunders, C. (1998). Toward a humanistic-phenomenological spiritualit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8, 5-18.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 330-340.
- Ellison, C., & Smith, J. (1991). Toward an integrative measure of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1), 35-48.
- Fehring, R. J., Brennan, P. F., & Keller, M. L. (1987). Psychological and spiritual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0, 391 - 398.
- Fish, S. & Shelly, J. A.(1979). *Spiritual care - The Nurse's Role*.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Frankl, V. E. (2012).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파주: 청아출판사.
- Gall, T. L., Charbonneau, C., et al.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spiritual factors and perceived growth following a diagnosis of breast cancer. *Psychology & Health*, 26, 287-305.
- Genia, V. (1991). The spiritual experience index: A Measure of spiritual maturit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0(4), 337- 347.
- Genia, V. (2001). Evaluation of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in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11, 25-33.
- Good, M., & Willough, T. (2008). Adolescence as a Sensitive Period for Spiritu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 2, 1, Pages 32-37.
- Greenwald, D. F., & Harder, D. W. (2003). The dimensions of spirituality. *Psychological Reports*, 92, 975 - 980.
- Hall, T. W., & Edwards, K. J. (1996). The initial development and factor

- analysi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Inventor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4, 233-246.
- Hall, T. W. & Edwards, K. J. (2002). The spiritual Assessment Inventory: A theistic model and measure for assessing spiritual develop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 341-357.
- Hall, T. W., Reise, S. P., & Haviland, M. G. (2007).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Inventory.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7, 157-178.
- Hay, D., & Socha, P. M. (2005). Spirituality as a natural phenomenon: Bringing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together. *Zygon*, 40(3), 589 - 612.
- Hadzic, M. (2011).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13, (4), 223-235.
- Hernandez, B. (2011). *The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Scale for Youth: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Graduate Faculty of the Louisiana State University.
- Highfield, M. E. (1992). Spiritual health of oncology patients. Nurse and patient perspectives. *Cancer Nursing*, 15(1), 1-8.
- Highfield, M. E. (2000). Providing spiritual care to patients with cancer.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4(3), 115-120.
- Highfield, M. E., Taylor, E. J. & Amenta, M. O. (2000). Preparation to care: the spiritual care education of oncology and hospice nurses.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2, 53-63.
- Hill, P. C., & Pargament, K. I. (2003). Advance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mplications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58(1), 64 - 74.
- Hill, P. C., Pargament, K. I., Hood, R. W., McCullough, M. E., Swyers, J. P., Larson, D. B. et al. (2000). Conceptualizing religion and spirituality: Points of commonality, points of departur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30(1), 52 - 57.
- Ho and Ho(2007). Measuring Spirituality and Spiritual Emptiness: Toward Ecumenicity and Transcultural Applicabilit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1, 1, 62-74.
- Hodge, D. R. (2001). Spiritual Assessment: A review of major qualitative methods and a new framework for assessing spirituality. *Social Work*, 46(3), 203 - 214.
- Hodge, D. R., & McGrew, C. C.(2006). Spirituality Religion and The Interrelationship: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2, 3. 637-654.
- Holland, J. C., Kash, K. M., Passik, S., Gronert, M. K., Sison, A., Lederberg, M., Russak, S. M., Baider, L., & Fox, B. (1998). A brief spiritual beliefs inventory for use in quality of life research in life-threatening illness. *Psycho-Oncology*, 7(6), 460-469.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01), 166B.
- Jung, C. G.(1933).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Koenig, H. (2002). *Spirituality in Patient Care: Why, How, When, and What*. Templeton Foundation Press, Philadelphia.
- Kahle, P. & Robbins, J. (2004). *The power of spirituality in therapy*. Binghamton, NY: The Haworth Press, Inc.
- Lavretsky, H. (2010) Spirituality and aging. *Aging Health*, 6(6), 749 - 769.
- Lawler-Row, K. A., & Elliott, J. (2009). The role of religious activity and spirituality i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43-52.
- Lepherd, L. (2015). Spirituality: Everyone has it, but what is i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1, 566-574.
- Levin, J. S. (1996). How religion influences morbidity and health: Reflections on natural history, salutogenesis and host resistanc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3, (5), 849-864
- MacDonald. D. A. (2000). Spirituality: Descrip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8 (1), 153-197.
- Mascaro, M. , Rosen, D.H., Morey, L.C.(2004). The development, construct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of the spiritual meaning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4, 845 - 860.

- Maslow, A. H.(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ton, K. I. (1989).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piritual support: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investigations.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3), 310-323.
- McSherrya, W., Draperb, P., & Kendrick, D. (2002). The construct validity of a rating scale designed to assess spirituality and spiritual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9, 723 - 734.
- McVay, M. R. (2002). Medicine and spirituality: A simple path to restore compassion in medicine. *South Dakota Journal of Medicine*, 55(11), 487 - 491.
- Milam, J. E., Ritt-Olson, A., & Unger, J. (2004).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 192-204.
- Miller, L. W.(2000).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A Spiritually Based Program.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85(1), 49-57.
- Miller, W. R., & Thoresen, C. E. (2003). Spirituality, religion, and health: An emerging research field. *American Psychologist*, 58, 24-35.
- Moberg, D. O. (2005). Research in spirituality, religion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5, 11-40.
- Monod, S., Brennan, M., Rochat, E., Martin, E., Rochat, S., & Bula, C.J. (2011). Instruments measuring spirituality in clinical research: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6,

1345-1357.

- Moreira-Almeida, A., Neto, F. L., & Koeig, H. G., (2006). Religiousness and mental health: *A review. Revista Brazillera de Psiquiatria, 28*, 242-250.
- May, R. (1979). *The meaning of anxiet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Nelson-Becker (2004) "Spiritual, Religious, Nonspiritual, and Nonreligious Narratives in Marginalized Older Adults: A Typology of Coping Styles."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17*, 1/2, 21-38.
- Neuman, M. E. (2011). Addressing children' beliefs through Fowler' stages of faith.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6*(1), 44 - 50.
- Paloutzian, R. F.; Ellison, C. W.(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eplau, L.A., Perlman, D., Eds. 224-237.; Wiley: New York, NY, USA.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91). Norms for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1), 56-70.
- Pargament, K. I. (2007). *Spiritually Integrated Psychotherapy.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the Sacred* Guilford: New York, NY, USA.
- Pargament, K. I. (1999).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Yes and no.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9*(1),

3 - 6.

- Parsian, N., & Dunning, T. (2009). Developing and Validating a Questionnaire to Measure Spirituality: A Psychometric Process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1, 1, 2-11.
- Peterman, A. H., Fitchett, G., Brady, M. J., Pharm, L. H., & Cella, D. (2002). Measuring spiritual wellbeing in people with cancer: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 Spiritual Well-Being Scale (FACIT-Sp).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4(1), 49-58.
- Plante, T.G., Sherman, A.C., Eds.(2001). *Faith and Health*. Psychological Perspectives Guilford: New York, NY, USA.
- Power, J.(2013). Spiritual assessment: developing an assessment tool. *Nursing Older People*. 18, 2, 16-18.
- Reis. L. M., Baumiller. R.,Scrivener. W., Yager. G.,Warren. N..S(2007). Spiritual Assessment in Genetic Counseling. *Journal of Genetic Counseling*, 16, 1, 41-52.
- Robertson, L. (2008). *The spiritual competency scale: A comparison with the ASERVIC competenc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Orlando, FL.
- Roehlkepartain, E. C., Ebstyn King, P.,Wagener, L., & Benson, P. L. (2006).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oving to the scientific mainstream*. Spi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 4-21. Philadelphia: Saunders.

- Schlehofer, M., Omoto, A., M., & Adelman, J. R. (2008) How Do “Religion”and “spirituality”Differ? Lay Definitions Among Older Adul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7(3):411 - 425.
- Shafranske, E. P., Gorsuch, R. L.(198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of spirituality in psychotherapy.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16,2,231-241
- Slater, W. (1999). *Defining and measuring spiritual growth: An investig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measures of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Maturity*. A paper presented at the 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April. Colorado Springs. CO.
- Soderstrom, D. & Wright, E.W.(1977). Religious orientation and meaning in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65-68.
- Spurr, S., Berry, L., & Walker, K. (2013). The meanings older adolescents attach to spirituality.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8, 3. 221-232.
- Thoresen, C. E., & Harris, A. (2002). Spirituality and health: What’ the evidence and what’ needed.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4(1), 3 - 13.
- Tillich, P.(2006). *존재의 용기*. 차성구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Treloar, L. L. (1999). Spiritual car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16(2), 15 - 18.
- Underwood, L. G., & Teresi, J. (2002).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evelopment, theoretical description, reliabil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preliminary construct validity using health related data.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4(1), 22-33.

Unterrainer, H. F., Lewis, A. J., & Fink, A. (2014). Religious/Spiritual Well-Being,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Results and Conceptual Issues ,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3, 2, 382-392.

Vaughan, F. (1986). *The Inward Arc - healing in psychotherapy and spirituality*. Boston. New Science Library.

Veach, T. L., & Chappel, J. N. (1992). Measuring spiritual health: A preliminary study. *Substance Abuse*, 13, 139-147.

Weathers, E., McCarthy, G., & Coffey, A. (2016).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ity: *An Evolutionary Approach Nursing Forum*, 51, 2, 79-96.

Zinnbauer, B. J., Pargament, K. I., & Scott, A. B. (1999). The emerging meanings of religiousness and spirituality: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67(6), 889-920.

Zinnbauer, B., Pargament, K., & et al. (1997). Religion and spirituality: Unfuzzifying the fuzz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4), 549.

## ABSTRACT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tholic Spiritual Maturity Inventory

Lee, Cha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plore the structures of spiritual maturity among Korean Catholic lay adults and to further develop a spiritual maturity inventory. The spiritual maturity inventories which have been used in Korea until now, was based on the Western theory of spiritual maturity, and the concept of spiritual maturity has been accepted by Korean culture without constructive criticism. If you want to actively practice the spiritual, you have to balance your styles of living with God, with your neighbors, with self and with your environments. You have to find inner nature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its a balance and integration of these are very important. Catholic spiritual maturity is gained through God's grace, his or her religious life, and we have to grow spiritually through faith and grace.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two elements:

Fir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Korean Catholics' spiritual maturity inventory.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ree factors in spiritual maturity were assumed. Those are faith in God,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self inner source. Based on the existing spiritual scales, interviews of Catholic priests, and experts in spirituality, ninety three items related to spiritual maturity were generated to find out the structures of Catholic spiritual scale. Through pilot study, forty six items were selected. Further study and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d that twenty four items were appropriate for the spiritual maturity scale. Four hundred and fifty Catholic lay adults were administered with the new spiritual scal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ree factors in this area. Howev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ased on the responses from the two hundred thirty adults showed that the three factors structure derived from the exploratory analysis was appropriate. The final spiritual maturity inventory consisted of twenty two items and three factors, each with 4-to-10 items, respectively. Three factors include ① faith in God, ②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③ self inner source. All of them were identified through factor analysis. Appropriate levels of reliability were established for the Catholic spiritual maturity inventory(CSMI). The results after examining all the variables by the confirmatory factors analysis showed .001 level of significance, that indicated that all items are meaningful. Also, a factor coefficient level is .50 above.

Second, CSMI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other

spiritual scales, such as Spiritual Well-being Scale and Spiritual Maturity Index through discriminant validity and convergent validity. On the other hand, it indicat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depression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anxiety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This study result demonstrated that CSMI can be used to help the Catholic lay people to assess and understand their level of spiritual maturity. Also the Catholic priests can use this CSMI to guide and help the lay people to have balanced spiritual life. The limitations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indicated.

---

*Key words:* spirituality; spiritual maturity; catholics

## <부 록>

- 부록 1. 인구통계학적 자료 (예비척도 설문지용)
- 부록 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예비척도 설문지용). 24문항
- 부록 3. 인구통계학적 자료 (척도 설문지용)
- 부록 4.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22문항
- 부록 5.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20문항
- 부록 6. 영적 성숙도 척도(Spiritual Maturity Scale). 30문항
- 부록 7. Beck의 우울 척도(BDI). 21문항
- 부록 8. 상태 불안 척도. 20문항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성 콜롬반 외방선교회의 이찬 신부입니다.

이번에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숙도 개발 및 타당화(가톨릭 신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채규만 교수님의 지도 아래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듣고 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고 여러분의 응답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고 정성껏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은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성숙도 척도를 제작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가 연구에 귀하게 쓰일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지도교수: 채규만

연구 책임자: 이찬 신부 드림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록 1. 인구통계학적 자료 (예비척도 설문지용)**

\* 다음 문항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나 √표시 해 주십시오.

순번	문항	응답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3	거주지	① 서울, 경기    ② 충청도    ③ 전라도 ④ 경상도      ⑤ 강원도    ⑥ 제주도    ⑦ 기타
4	학력	① 중졸 혹은 중졸이하    ② 고중퇴    ③ 고졸 ④ 대학재학    ⑤ 대학 중퇴    ⑥ 대졸    ⑦ 대학원 이상
5	영세시기	① 유아영세                      ② 초등학교 시절 ③ 만12세에서 만18세 사이    ④ 만18세 이후
6	신앙생활연수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7	가족의 종교상황	① 본인만 신자    ② 가족 일부만 가톨릭신자 ③ 가족 모두가 가톨릭 신자

**부록 2.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예비척도 설문지용). 24문항**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나 √표시 해 주십시오.

순번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하느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1	2	3	4	5	6
2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6
3	하느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1	2	3	4	5	6
4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다.	1	2	3	4	5	6
5	하느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1	2	3	4	5	6
6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하느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시다.	1	2	3	4	5	6
8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려고 한다.	1	2	3	4	5	6
9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0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하느님을 신뢰한다.	1	2	3	4	5	6
11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있다.	1	2	3	4	5	6
12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13	하느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4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15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6	대체로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 잘 공감하고 표현한다.	1	2	3	4	5	6
17	나의 신앙은 내 삶을 이끌어주고 무엇인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5	6
18	사회생활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6
19	내 인생에 성취감을 갖는다.	1	2	3	4	5	6
20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회복된 적이 있다.	1	2	3	4	5	6
21	동료들이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	2	3	4	5	6
22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즐거움이 더욱 커진다.	1	2	3	4	5	6
23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	2	3	4	5	6
24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은 그것을 극복하는 큰 힘이다.	1	2	3	4	5	6



**부록 4. 가톨릭 신자 영적 성숙도 척도. 22문항**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나 √표시 해 주십시오.

순번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하느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1	2	3	4	5	6
2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6
3	하느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1	2	3	4	5	6
4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다.	1	2	3	4	5	6
5	하느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1	2	3	4	5	6
6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하느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시다.	1	2	3	4	5	6
8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려고 한다.	1	2	3	4	5	6
9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0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느님을 신뢰한다.	1	2	3	4	5	6
11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있다.	1	2	3	4	5	6

12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13	하느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4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15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6	대체로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 잘 공감하고 표현한다.	1	2	3	4	5	6
17	사회생활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6
18	내 인생에 성취감을 갖는다.	1	2	3	4	5	6
19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회복된 적이 있다.	1	2	3	4	5	6
20	동료들이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	2	3	4	5	6
21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	2	3	4	5	6
22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은 그것을 극복하는 큰 힘이다.	1	2	3	4	5	6

**부록 5.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20문항**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나 √표시 해 주십시오.

순번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다지 큰 만족을 얻지 못한다.	1	2	3	4	5	6
2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1	2	3	4	5	6
3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	1	2	3	4	5	6
4	나는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5	나는 신이 나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	1	2	3	4	5	6
6	나는 나의 장래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나와 신은 서로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6
8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느낀다.	1	2	3	4	5	6
9	나는 신으로부터 힘과 칭찬을 많이 얻지 못한다.	1	2	3	4	5	6
10	나는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1	2	3	4	5	6
11	나는 신이 나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6

12	나는 살아가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1	2	3	4	5	6
13	나는 신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1	2	3	4	5	6
14	나는 나의 장래를 좋게 본다.	1	2	3	4	5	6
15	내 곁에는 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1	2	3	4	5	6
16	나는 고민이 많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7	나는 신과 가깝게 지낼 때 가장 만족스럽다.	1	2	3	4	5	6
18	산다는 것은 내게 많은 의미를 준다.	1	2	3	4	5	6
19	나는 신과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	1	2	3	4	5	6
20	나는 살아가는 것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6

### 부록 6. 영적 성숙도 척도(Spiritual Maturity Scale). 30문항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나 √표시 해 주십시오.

순번	문항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교회를 통해 생동감 있는 신앙을 갖는다.	1	2	3	4	5	6
2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6
3	나는 하느님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매일 생각한다.	1	2	3	4	5	6

4	주위 사람들이 내가 가톨릭신앙을 갖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가톨릭 신앙을 가질 것이다.	1	2	3	4	5	6
5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다른 가톨릭 신자들의 격려와 본보기는 필요하다.	1	2	3	4	5	6
6	나는 신앙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과 진리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나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6
8	내가 추구하는 영적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1	2	3	4	5	6
9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필요를 돌아봐야 한다.	1	2	3	4	5	6
10	나의 신앙이 매일의 삶에 목적을 제시하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6
11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예수의 희생적인 삶을 닮는 것이다.	1	2	3	4	5	6
12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하느님과 의 관계보다 나의 개인적 혹은 전문적인 위치와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1	2	3	4	5	6
13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내 삶의 커다란 즐거움이다.	1	2	3	4	5	6
14	내가 받은 영적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15	나는 성령의 열매를 잘 드러내며 살기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5	6
16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삶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17	하느님은 내 삶 중 가장 어둡고 어려운 때를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심을 믿는다.	1	2	3	4	5	6
18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19	내게 도움이나 이익이 되더라도 신앙의 지식과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포기 하겠다.	1	2	3	4	5	6
20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생기든지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명이다.	1	2	3	4	5	6
21	나 스스로 성경을 규칙적이며 깊이 있게 공부한다.	1	2	3	4	5	6
22	나의 신앙적 경험을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1	2	3	4	5	6
23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나의 대인관계에서 드러난다.	1	2	3	4	5	6
24	하느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린다.	1	2	3	4	5	6
25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가까이 알고 헌신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6
26	미사와 다른 신자들의 만남은 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1	2	3	4	5	6
27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	1	2	3	4	5	6
28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1	2	3	4	5	6
29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진다.	1	2	3	4	5	6
30	한마디로 나와 하느님의 관계는 살아 있고 성장하고 있다.	1	2	3	4	5	6

**부록 7.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dex: BDI) 21문항**

\* 다음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4개의 글 중 요즈음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동안) 자신의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글의 왼쪽 칸에 ○표시 해 주십시오.

1번

1	나는 슬프지 않다.
2	나는 슬프다.
3	나는 언제나 슬픔에 젖어 헤어날 수가 없다.
4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번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비관적이지 않다.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3	나는 앞날에 대한 기대가 아무 것도 없다.
4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도 없다.

3번

1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할 것 같다.
3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건 실패뿐이다.
4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4번

1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2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3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4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번

1	나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3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4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번

1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나는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3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7번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3	나는 나 자신이 역겹다.
4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8번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2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내 자신을 책망한다.
3	나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되어 있을 때 언제나 나를 탓한다.
4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을 내 탓으로 돌린다.

9번

1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2	나는 자살할 생각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3	나는 자살하고 싶다.
4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번

1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2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운다.
3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4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어야 울 수도 없다.

11번

1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화를 내는 편은 아니다.
2	나는 평소보다 더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3	나는 요즈음 항상 화가 난다.
4	전에는 화나던 일에 요즈음은 전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번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줄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번

1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2	나는 평소보다 결정을 미루는 때가 더 많다.
3	나는 결정 내리는 것이 전보다 더 힘들다.
4	나는 이제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번

1	나는 평소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호감을 못 줄 것 같아 걱정이다.
3	나는 내 모습이 아주 불품없어져 버린 것 같다.
4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번

1	나는 평소처럼 일을 할 수 있다.
2	어떤 일을 하려면 평소보다 더 힘이 든다.
3	무슨 일이든 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4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번

1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2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3	나는 평소보다 새벽에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4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번

1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2	나는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3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 진다.
4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번

1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2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식욕이 없다.
3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4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번

1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2	전보다 몸무게가 2 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5 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4	전보다 몸무게가 7 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아니오)

20번

1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2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으로 건강이 염려된다.
3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서 다른 일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4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서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21번

1	나는 요즈음 성(性)에 대한 관심이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2	나는 평소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3	나는 요즈음 성(性)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4	나는 성(性)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부록 8. 상태 불안 척도. 20문항**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나 √표시 해 주십시오.

순번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1	2	3	4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1	2	3	4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1	2	3	4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1	2	3	4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1	2	3	4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1	2	3	4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9	나는 불안하다.	1	2	3	4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짜증스럽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	2	3	4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1	2	3	4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	2	3	4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르겠다.	1	2	3	4
19	나는 즐겁다.	1	2	3	4
20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